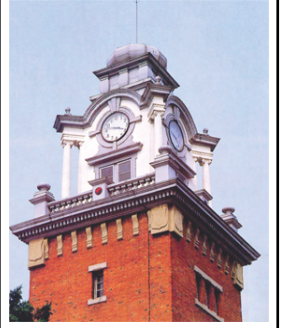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23년 10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50권 4호

5501 Merchants View SQ, #810, Haymarket, VA 20169
Tel: (516) 365-5500

발행인: 田璟培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亮 羅斗變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皙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강신호 선배님과 미주동창회

1927년 5월 13일 ~ 2023년 10월 3일



선배님께서는 의과대학 1983-1994 동창회장, 그 후 명예회장으로 헌신하셨다. 2015년 12월 초 본인은 44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일로 동대문에 위치한 동아쏘시오 집무실로 인사를 갔다. 다음 해 6월 미주 학술대회에 참가하시기를 부탁드렸다. 그때 사모님이 몹시 몸이 위중하여 참석이 어렵다고 하셨다. 그날 면담의 다른 중요한 용건은 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에 대하여 연구를 한 시애를 거주의 박찬형(62) 동문의 연구 실적과 그에 대한 약의 개발 건이다. 선배님은 비서진을 통하여 동아제약 연구팀이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나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셔서 감사했다. 집무실 벽에는 한국 경제인 대표로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수상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독일 유학 시 은사가 된 하이데거 교수 사진도 걸려있어서 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나치 히틀러와 연관이 있었던 '인간 존재'를 연구한 철학자이다. 연세가 90세이신데 아직도 걸어서 골프를 치신다고 해서 놀랐고 헤어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와서 떠나는 나를 배웅하셨다.

그 다음날 롯데에서 열린 연례 의대총동창회에서 (존칭 생략) 권이혁, 이길녀, 후배 박인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중용 동창회장, 강대희 학장, 오병희 병원장과 함께 동근 Head Table에 둘러앉아 옆에서 어색해하는 나를 내내 배려하여 주셨다. 그날은 평론가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님(나의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했다. 동석하기로 되었던 후배 안철수 의원은 예정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6년 봄에 사모님이 작고하셨다. 그리고 6월 버지니아 Westin Hotel에서 열린 미주 학술대회에 비서진들과 함께 참석하셨다. 박카스를 비롯하여 각종 동아제약 의약품과 거금 현찰 봉투를 우리 동창회에 기증하셨고 연회장에서는 러플 티켓을 크게 사셔서 흥을 돋우어 주셨다. 이 학술대회 때는 고마운 박용현(68) 명예회장과 신규호 교수, 김상우 동기회장 등 많은 국내의 68년 동기들이 힘이 되어 주셔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김병오(69) 부회장을 비롯하여 수고하신 여러 선배님 임원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선배님께서 젊은 동문인 박은경, 송경민 두 회원에게 특별상을 주셨다. 수도 워싱턴 관광 시에는 신용계(68) 동문이 도와주어서 좋았으며 박물관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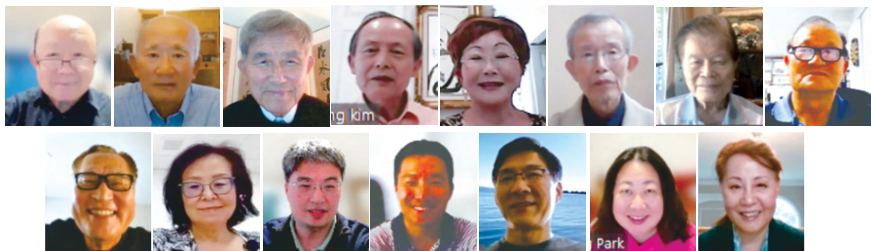
했을 때 나폴레옹이 조세핀 왕비에게 선물한 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 함께 놀라셨다. 이날 우리는 버스(68년 동기 김철 동문 리드)와 따로 작은 미니밴을 포토막 강가에 주차하고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도시락을 들었다. 학술대회가 끝나는 날, 웨난도 마운틴 관광으로 떠나는 동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면서 주차한 버스로 올라와서 덕담을 나누시고 동문들과 악수를 하며 후배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셨다.

이분은 늘 호텔방을 아주 작은방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해 드렸다. 눈이 침침했던 나에게 쓰라고 일본제 분홍색 패드를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분의 명저서 '생활한자어 3000자'는 동아제약회사 직원이면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글, 한문, 일본어로 된 모든 글자가 한 획 한 획 쓰여지는 순서가 설명되어 있다. 한, 일,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요긴한 저서이다. 학회가 끝난 후에도 오십여 권을 추가로 보내주셔서 미주 편집위원들과 미주동창회 임원들에게 다 배부되었다. 또한 의사 수필가로서 수석회(최신해, 김기령, 배병주, 이순형, 강신영, 유석희 등)에서 발간하는 수필집에 해마다 명수필을 남기셨다. 이분의 철학은 동아쏘시오 회사의 사훈처럼 "남을 잘 되게 도와주고 따라서 자신도 잘 되는 철학"이다. 얼마 전 미주 한국일보 워싱턴의 이종국 편집장이 자신이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고 어려울 때 동아제약 장학금으로 공부했다고 한 것을 알았다. 수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강신호 선배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의 쏘시오는 사회, Society 의미한다.

동창회로 인연이 되어 잠시나마 가까이한 기억을 더듬어서 이 글을 올린다. 지난 몇 해간 건강이 안 좋으시다가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날, 10월 3일 개천절 날에 96세의 빛나는 여정을 끝내셨다. 감사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옵소서.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

이사회 초록

2023년 9월 23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Zoom 참석: 김한중(62) 김태웅(63) 최영자(66) 서윤석(68) 김성환(71) 김일영(71) 강창홍(71) 서인석(73) 전경배(75) 한승신(76) 남명호(81) 김자성(85) 강민중(91) 임경빈(99) 허원제(02) 박혜성(06) 김영애(71, 김성환 부인)
존 백(fund manager) 제이미 김(사무장)



Proxy: 이만택(58) 채규철(59) 최종진(59) 강창욱(61)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최순채(66) 신규호(68) 강유구(71) 조병선(71) 이원택(71) 고용규(73) 한민우(75) 안우성(76) 차민영(82) 이선규(89) 박은경(00)

- 2023년 9월 23일(토요일) 동부와 서부 zoom 화상회의로 이사회가 김성환(71) 동문의 사회로 시작되었음.
- 지난 회의 대의원회 초록(2023년 3월 30일)을 요약하여 읽은 이후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음.
- 2023-2024의 새 임원 소개를 함.
- Treasurer (김자성 '85)의 재무 서면 보고:
2023년 9월 20일 현재 은행 잔고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9월 20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음.
- By-Laws committee report (73 서인석, 76 한승신):
서인석(73) 한승신(76) 서귀숙(84) 박계영(90) 강민중(91)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수 차례의 zoom 화상회의로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사회에서 몇 가지 제의의 사안에 대해 토의 및 결정을 요청함.
(1) 대의원회에서 각 officer는 2년 임기로 하되 후임이 정해진다는 조건 아래에 한함.
(2) 북미주동창회 동문의 자녀로 M.D. 혹은 D.O.를 가진 자들을 Affiliated member라고 칭함.
(3) 총무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대의원회 2주 전까지 명확히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있음. 현재 regional chapter, 동기대표와 past president가(다음면에 계속)

Directory 2023년 발간에 드리는 중요한 말씀들

1. The Second Generation in Medical Fields

동문의 이름과 자제분의 English Name, Speciality와 Practice 장소와 State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 예로 적어보면,
부모 성함: 마동일 (63) / Mah, Anna 마상희

Danberry, CT / Radiology (Breast Imaging)
자제: Mah, Hans 마상훈 / Charlotte, NC / Pediatrics

이와 같이 자제분들의 내역을 younseokseo2004@gmail로
10월 31일까지 연락을 주십시오.

2. 새 동창회 명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원하지 않으신 동문이 계시면 동창회 명부에 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0월 31일까지 위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안하시면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2세 자제분들 중에 이미 2015년 명부에 게재된 준회원 중에서도 원하지 않는 분도 빼드릴 것입니다. 저에게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창회 명부 발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협조하신 이덕송(60), 강창욱(61), 한기현(63), 권정덕(64), 홍선경(64), 이태안(67), 홍광신(68), 신용계(68), 나두섭(73), 박계영(90) 동문 등과 김영애 여사(71 김성환 동문 부인), 학년별 여러 동기회장님들과, 동창회 본부 제이미 김 사무장, 지역 동창회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ublication Committee Chair 서윤석 (68)

미주동창회에 보내온 특별 장학기금과 후원금 현황

여러 동문들과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께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미주 동창회에 장학기금과 그린 프로젝트 활성화 기금 등의 후원금을 보내오시고 계십니다.

이상설 (58), 이상일 (60), 김태웅 (63), 정일환 (63), 황훈규 (68) 특별장학금과 미주 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로부터 온 감사편지 일부를 6면에 올렸습니다.



고 이철희 (61) 동문의 부인 이강옥 여사께서 \$30,000을 Green Project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하셨습니다. 고 이철희 동문은 마취과 전공의로 CA 거주하셨었고, 현재 이강옥 여사께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 이강옥 여사 편지 소개(아래)



고 김국민 (60, pathology 전공의) 동문의 부인 김공자 여사께서는 Green Project 활성화 기금으로 2022년 7월에 장학기금 기부를 시작하여 2023년 5월까지 첫 번째 1만불을 보내주셨고, 2023년 7월부터 두 번째 1만불을 나누어 기증하고 계십니다. 고 김국민 동문은 pathology 전공의 이셨고, 김공자 여사께서는 MD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일 (60) 동문께서는 그린 프로젝트 활성화 기금으로 \$10,000을 기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7월호에 회비와 donation 난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상일 동문은 emergency medicine 전공의로 MI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고 황훈규 (68) 동문의 부인이신 황중숙 여사께서 북미주동창회 장학기금으로 \$5,000을 보내오셨습니다.

고 이철희(61) 동문의 부인 이강옥 여사의 편지:

남편 (61, 이철희)이 대학생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정교사하면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남편과 저의 뜻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 기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주동창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쓰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동안 나누며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학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편지도 잘 받았고, 동창회로부터 받은 과찬이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옥 드림.

학생 실습을 온 후배님들의 희망찬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수도 워싱턴, Virginia, 한강 레스토랑, 주예나(Pathology) 진희주(Cardiology) 최민욱 (Pain Management/surgery in the future), 신용계(68, 마취과 은퇴) 부부, 서윤석(68, ENT 은퇴) 부부, 남명호(81, pathology) 교수, 장세권(01) 교수, Jamie Kim (서울의대 북미동창회) 사무장

(이사회 초록; 전면에서 계속)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이사회에서 토론 후 확정해 주면 By-Laws amendment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상세히 논의할 수 없고 Regional chapter 결정 문제, 동기대표 숫자 조정 문제에는 엇갈리는 의견이 있어 일단 By-Laws committee와 회장단에서 논의하기로 했음.

6.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 존 백 fund manager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자산 관리를 한 지가 25년이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5.5%를 보이고 올해 말에는 마이너스 3.8%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음. 내년에 금리가 내리게 되면 다시 수익 8-9% 예상을 한다고 밝혔음.

AXA lifetime payment 올해의 받은 총금액과, 특별투자 15만불에 대한 이자 금액과 원금을 발표하였음.

7. Scholarship committee report(강민중 '91):

멤버: 강민중(91) 이선희(81) 서인석(73) 김태곤(01) 조수정(03) 이익재(08)

(1) 2017년 졸업하고 미국에서 resident를 하면서 PhD를 시작하는 박대용(17) 동문 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황중숙 여사(고 황훈규 '68 동문 부인) fund의 지원금 전액으로 지원하기로 보고 하였고, 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음.

(2) 2023년 가을학기 미주교포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이 사회의 승인이 있었음.

3명의 김태웅 장학생과 1명의 김정화 여사 (고 이상설 '58 동문 부인) fund 장학생, 2명의 최문숙 여사(고 정일환 '63 동문 부인) fund 장학생, 2명의 SNUCAA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음.

(3) 새로운 Scholarship committee chairmen으로 Vanderbilt 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태곤(01) 동문과 Columbia 의대 신경과 교수 이익재(08) 동문을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음.

8. Research & Fellowship report: (박혜성 '06, 강민중 '91)

고령화 되어 가는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현실에서 앞으로 젊은 동문의 미주 진출을 도와 현 동창회의 미래를 키우는 목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계획을 보고 하였음. 젊은 동문의 미국 내 연구 보조를 하는 것으로,

(1) 한승신(76) 젊은 연구자상 5만불: trainee, junior staff와 연구분야 scholars

Will(유서) 작성과 모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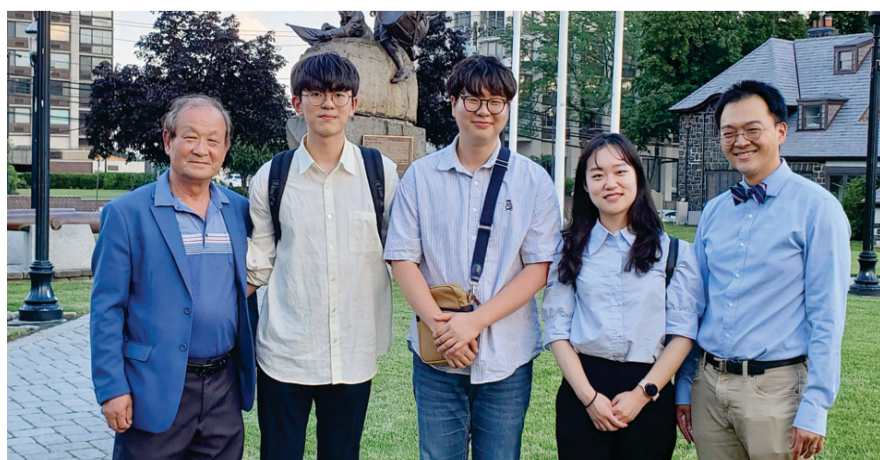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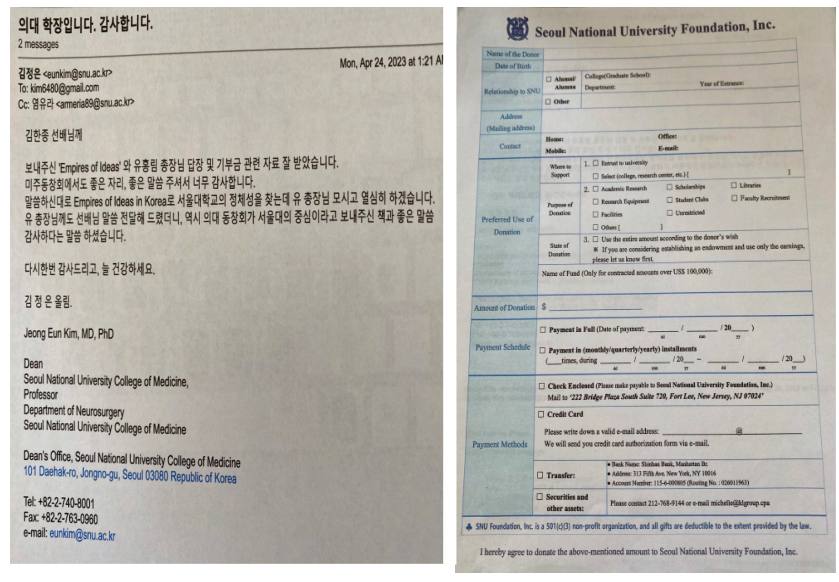
Article III Specific Gifts
3, 2 REQUES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Seoul, Korea, provided it is in existence at the time of death. I bequeath ten (10%) percent of the amount in 401K on the date of mt death.

지난 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김정은 모교 학장님과 김한중(62) 동문 나눈 서신(아래)을 참고로 같이 올립니다.

실제로 그 내용의 Will 시행이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미주에서 직접 서울대학교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이만택 선배님 담당)으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Will 작성에 대한 문의나 그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동문들은 김한중(62) 선배님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kim6480@gmail.com 전화: 908 342 5560 (김한중)



콜롬비아 의대 신경내과에 근무하는 이익재(08) 교수의 수고로 clerkship을 나왔던 세 명의 4학년 학생들과 7월 27일 뉴저지 주 포트리에 있는 동방그릴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진 왼쪽으로 부터 서인석(73), 원지운, 최성우, 서지원, 이익재(08)

가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fund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음.

(2) 본교 서울의대와 논의 중으로 본교 동아리 Maxim의 학생에게 미주 의료계 견문 보조금으로 5만불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3) 한미 공동 연구기금(정식 명칭은 추후 결정)으로 5만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아직 의논 중임.

9. Green Project report (임경빈 '99):

Scholarship committee와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와 연계하여 extended GP meeting을 통하여 미주 내의 그린 프로젝트 멤버들의 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음.

Green Project committee co-chairman으로 수년간 그린 프로젝트 일을 열심히 도왔던 허원제(02) 동문을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음.

10.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 (서윤석 '68):

지난 6개월 간 진행되고 있는 2023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Directory가 11월 15일 날짜로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호 시계탑에 이 내용이 공지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 문제로 본인의 개인 정보가 Directory에 올려지기를 원치 않는 회원은 서윤석 편집장에게 연락을 하여 제외할 것을 알리기로 한다고 했음.

그 동안 정확한 주소와 내용을 수집한 각 동기 회장들과 사무장의 노고가 컸다고 감사 표시를 하였다. 이번 주소록에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By-Laws와 동창회 역할을 함께 directory에 올리겠다고 했음.

11. Charity report (최영자 '66, 김자성 '85):

Charity committee의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인 Africa에 우물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미주동창회에서 지원하여 준 것에 대하여 예 감사를 표하였음. 특히 이 내용을 지난 시계탑 첫면에 안내 해 준 서윤석 편집장께 감사 표시를 하였음.

1966년 졸업 동기들이 별도로 또 하나의 우물을 외부지원과 합하여 더 하게 되었다고 보고 했음.

12. 전경배 회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동창회의 모든 결정은 유동적으로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음.

참석자의 사진 촬영으로 이사회가 마무리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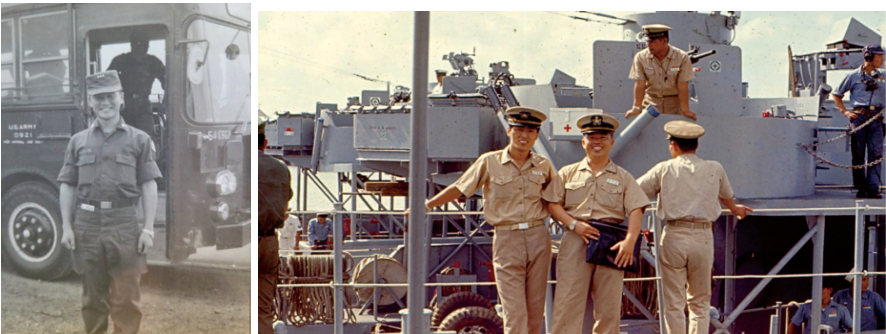
고 김수현(Soo Hyun Kim, M.D.)를 영웅으로 추대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주평 (68년 졸업) 동문이 지난 6월 Flags for Heroes Ceremony 행사에서 김수현 (65년 졸업) 선배를 다른 미국 참전 호국 Veterans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영웅으로 추대했다.

고 김 선배는 1965년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 인턴을 거쳐 1966년 해군 군의관으로 임명되어 1967년 1월 주월 해병대 2여단 3대대 의무실장으로 복무 중, 짜반박 전투에서 희생적으로 전상 환자를 돌보다가 머리에 총상을 맞고 전사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사진은 김수현 동문이 의대 학생시절 받은 피겨 스케이팅 대회 1등상을 받았



남명호(81)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모교 동창회 방문



미주동창회 제52대 전경배 회기(2023-2024) 임원 명단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전경배(75)	kbchon@hotmail.com
President Elect	남명호(81)	lucy.nam@inova.org
Vice President	한민우(75)	minwoohan51@gmail.com
Vice President	차민영(82)	minyacha2003@gmail.com
Secretary	김영애 여자	yakim423@gmail.com
Treasurer	김자성(85)	jasungkim@hotmail.com

Committee Chairmen

Finance	김성환(71)	sunghwkim@gmail.com
Scholarship Co-chair	김태곤(01)	kim.taekon@gmail.com
Scholarship Co-chair	이익재(08)	leeij15@gmail.com
Fund Raising	최광휘(76)	akchoi52@gmail.com
S Fund Management	강유구(71)	kangyoogoo@gmail.com
Research & Fellowship co-Chair	강민중(91)	min-jong.kang@yale.edu
Green Project co-Chair	박혜성(06)	haeseong_park@dfci.harvard.edu
Publication	임경빈(99)	kbinim@gmail.com
By Laws co-Chair	허원제(02)	won.jae.huh@yale.edu
By Laws co-Chair	서윤석(68)	younseokseo2004@gmail.com
Advisory & Exchange	서인석(71)	ins9002@gmail.com
Nominating	한승신(76)	hahns@upstate.edu
Office Management	이만택(58)	mmtleemd5@gmail.com
Charity co-Chair	전경배(75)	kbchon@hotmail.com
Charity co-Chair	남명호(81)	lucy.nam@inova.org
Website	최영자(66)	ychoikim@gmail.com
Associate Website	김자성(85)	jasungkim@hotmail.com
Convention co-Chair	주광국(68)	kwangjoo@hotmail.com
Convention co-Chair	송경민(09)	minnie0802@gmail.com
	한승신(76)	hahns@upstate.edu
	남명호(81)	lucy.nam@inova.org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과 MEXIM 회원들과의 만남

2023년 9월 1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구 목계화원에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인 남명호 선배님과 서울의대 MEXIM 동아리 회원(안소희 회장, 신정현, 이지양, 이혜진, 정연우)들이 2시간 정도 만남을 가지고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MEXIM 회원의 미국 연수 (clerkship, observership, research 등) 지원 학년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으로 5명의 본과 4학년 학생이 미국으로 해외 elective를 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 지원 학년을 기존의 본과 4학년에서 본과 3학년으로 확대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과 3학년까지 지원 자격에 포함하여 3학년 학생이 미주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 그 학생은 본과 4학년이 되었을 때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논의 결과, 현 커리큘럼 상 본과 3학년 여름과 겨울 방학이 한 달 단위의 clerk-

ship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지 않고, 본과 3학년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포함한 필수 임상실습 과목 (core clerkships)을 마쳐야 미국에서 clerkship이 가능하므로 지원 학년 확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현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처럼 본과 4학년 해외 elective 실습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MEXIM 회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생 선발 기준(예: 학교 성적, 도미를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 장학금 지원이 미주동창회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주동창회는 격년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공지 받았고,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MEXIM에서 진행한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과의 비대면 만남 계획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Minutes submitted by: 안소희



J-1 Visa Waiver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017년 졸업생 오유정입니다. 뉴욕 브록클린에서 3년 소아과 수련을 마치고 옆스테이트 뉴욕에서 J-1 waiver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지원까지의 과정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신 텐데 그 이후의 과정은 비교적 덜 알려진 것 같아, J-1 waiver를 위해 지금까지 겪은 과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인석(73) 선배님과 함께

목록의 병원들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병원과 연계된 recruiter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일단 직장이 구해지면, H1B로 비자 전환을 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과정이 시작됩니다. 병원의 이민 변호사 팀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합니다.

비자 전환과 영주권 신청 과정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Birth Certificate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undergraduate and graduate diplomas and transcripts, 여권(과거에 받은 모든 비자 스탬프 포함), DS-2019 (J-1 비자의 일부로 받게 되는 서류이며 이 서류가 없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I-94 (미국 출입국 기록), 결혼을 한 경우 혼인 증명서, pay stub, 보드 시험 (미국 레지던시 후 치르는 보드 시험) 합격증, ECFMG certificate (미국 국가고시에 해당하는 USMLE 시험들을 모두 합격할 경우 받는 증명서), USMLE 시험 (Step1, Step2 CS, Step2 CK, Step 3) 성적표, 주 면허(면허 발급에 3-4개월, 주에 따라 4-5개월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다음 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레지던시 졸업 증명서입니다. 저도 아직 비자 전환의 초기 과정을 거치고 있는 터라 이 목록 이상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대학 때부터 (안전하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받는 모든 증명서/성적표, 여권 관련 서류들, 미국에서 클럭십을 하셨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들(certificate of completion 등)은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레지던시를 시작할 때 비자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따라 J-1 혹은 H1B 비자를 지원해 주는데 최근에는 H1B 서포트가 점점 줄어들고 J-1 서포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두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H1B 비자는 이민 의도가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수련이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비자 웨이버를 할 필요 없이, 영주권 서포트 해주는 직장을 찾아 제약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J-1 비자는 비이민 의도 비자이며, 수련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소 2년간 본국에서 지낸 후에는 새롭게 비자 서포트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J-1 waiver를 하는 것입니다.

J-1 waiver는 본국으로 2년간 돌아가는 대신 의료취약지역에서 최소 3년간 일하며 이민 의도가 있는 비자(H1B)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 병원에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J-1 waiver를 서포트 해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인맥을 통해 J-1 waiver 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자리를 구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인/구직 웹사이트는 practicelink.com이라는 곳이며, 저도 그곳에서 J-1 waiver 자리를 구했습니다. 웹사이트에 CV를 업로드하고 구인

J-1 waiver 자리는 레지던시 마지막 학년이 시작하자마자 구하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J-1 waiver를 위한 비자 전환 과정이 보통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두셨다가 레지던시 졸업을 하자마자 이민 변호사 팀과 비자 전환 과정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yoojeong.oh.5@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정(2017; GNY)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용덕(59) 동문: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다 지난 9월 24일 별세하셨습니다.
 오형원(59) 동문: 남가주에 거주하시다 지난 9월 24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순철(60) 동문: 2018년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현철(63) 동문: 샌디에고에 거주하시다 9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정유석(64) 동문: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다 지난 7월 20일 별세하셨습니다. 시계탑에 문화 예술 음악과 작품들에 대한 소개 글 등을 거의 매호 기고하여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난 호에 게재된 글이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준강(65) 동문: 커네티컷에 거주하시다 별세 하셨습니다
 김종원, 윤낙승, 이규홍, 이룡 66년도 졸업 동문들 별세.
 최근 주소록 발간을 위해 주소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66학년도 동기대표로 부터 최근 혹은 수년 전에 별세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훈규(68) 동문: 캘리포니아 주 거주하시다 지난 8월 7일 별세하셨습니다.
 박찬호(72) 동문: 보스턴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5월에 별세하셨습니다.
 김명호(75) 동문: 콜로라도에 거주하시다 10월 14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임낙중 박사 추모사



오늘 이 자리를 허용하여 주신 가족님들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성업입니다.

고인과 저는 이 세상에서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되어 1959년도 서울의대를 졸업한 이래 미국에 와서도 50년 이상을 Maryland에서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고인은 의대 6년 동안 특수 장학생으로 등록금 면제를 받고 졸업 시엔 전 서울대 일등으로 입학한 동기생을 제치고

버지니아, 2020년 1월 23일

대통령 상을 수상한 영재로서 우리 학급의 자라이었습니다.

1999년에 큰 뜻을 품고 명의로 이름을 날리던 정형외과 개업을 정리하고 은퇴한지 얼마 안 되어서였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직장암이란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직장 절개라는 큰 수술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꼭 드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이 Johns Hopkins Hospital인데 마침 내 근무처이기도 해서 나는 출근하자 그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수술한 지하루도 안 된 그 아침에 그는 아픈 배를 움켜잡고 두 발로 서서 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비된 내장의 기능을 속히 회복하고자 스스로 시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용기입니까?

그 후 그는 이와 같은 강한 의지력과 지혜로 모든 힘들었던 질병에서 회복되고 이겨내면서 8권이 되는 수필집을 출간하였고 시계탑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달리 동서고금의 철학과 종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일가견을 이루고 있었으며 전문가와 토론도 즐겼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대단히 비상했고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물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금강경 전문을 매일 잡자리에 들면 암송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서양화와 근년에 들어서는 동양 서필에 흥미를 갖고 작품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동문수학 동갑내기로서 여러 면에서 가끔 경쟁자가 되기도 했지요. 특히 골프 비거리가 그렇지요. 그 운동도 평시엔 우리는 막상막하라고 하겠으나 시험 때나 상금이 걸린 때만은 상황이 달라졌지요. 그리고 최종 승리자는 그가 늘 차지했지요.

불과 10일 전 메릴랜드 옛 친구 부부들과 같이 Haymarket, Virginia에 사는 고인을 문병하였지요. 비록 말씀은 없었어도 옆방에서 2분의 아드님이 떠들썩했고 묵묵히 점심 식사하는 우리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셨지요. 식사 후 우리가 물러 나올 때가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몸조리를 잘하라고만 하면서 떠나왔지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네요. 이제 우리 고별을 하는 이 순간의 슬픔을 멈출 수 없지만 즐거웠던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어 봅니다.

영원한 나의 벗 임낙중 선생, 당신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성취했고 많은 사람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였고, 또 그동안 남긴 많은 글과 즐겼던 토론들이 우리의 바른 생각을 일으켰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었소. 감사드리오. 이제 명복을 비오니 부디 편안히 잠드시오. 2023년 9월 21일 영결식에서 - 한성업 (59)

김공자(고 김국민 동문 부인) 여사가 보내온 글

Dr. Kookmin Kim was born in 1936 into a family of medical doctors in Chulsan, near the border with China and the west coast. His grandfather was a believer that medicine is the best occupation and made all his sons Mds. His father found a job in Seoul when he was a preschooler. When World War II ended, North Korea was occupied by Soviet Russia. Dr. Kim's grandfather was opposed to the communism and the rest of the family moved to Seoul. when he was a third grader.

Dr. Kim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medical school from the prestigious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his time in medical school, he met many friends with whom he enjoyed hiking and mountain climbing.

After medical school, Dr. Kim served as a Korean Naval Medical Officer. He met his wife, Kim Kong Ja in Chinhae. They were married in 1964. After discharge from the Navy, Dr. Kim emigrated to the US in 1966. He spent his career as a research pathologist for the Veteran's Administration and a Professor of Pathology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 both in Baltimore, MD. He then served both roles again at the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 in Shreveport, LA and LSU-Shreveport. During his professional career, he authored numerous publications on the pathology of calcification. In 2002, he retired to the beautiful area of Sequim, WA and enjoyed many years on his sailboat with his wife by his side as well as working on his woodworking projects. He loved visits from his seven grandsons--who knew him best as Habaa--and enjoyed sharing his life lessons with them through parables, advice, and good old fashioned handiwork. His family will miss his funny stories, boundless wisdom, and dry sense of humor. He had a talent for language and music and a lifetime love of learning, which his grandchildren carry forward as part of his legacy.

황훈규(黃勳奎) 형을 추모하며



하와이에서 황훈규 부부와 Mrs. 김진홍

대학 시절부터 훈규 형과 나는 체형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다. 제 삼자의 생각으로는 서로 상극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둘 사이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지 서로 잘 어울렸다. 형은 성격이 낙천적이고 온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같았고 나는 항상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늘 부러워했다. 형은 작은 키이나 약간 뚱뚱했고 나는 피골이 상접해서 깡마른 타입이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형은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에 관련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한번은 페블 비치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몬트레이 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형 부부와 우리 부부가 방을 하나씩 얻어서 투숙한 일이 있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 형의 방에 들러보니 형은 인슐린 주사기를 들고 난리가 났다. 식사 후 혈당이 400이라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형은 골프를 칠 때도 사탕 혹은 캔디바를 가지고 다녔다. 저 혈당으로 인해 세상이 파랗게 보인 적도 있다고 했다. 저 혈당 쇼크가 오면 회복이 빨리 안되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고 했다.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는 항상 스테이크를 시켰다.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로 보충하는 것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서 지내고 있는데 그중 형은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나에게 한 적이 없었다. 항상 솔직하고 나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았다.

마우이 섬의 카나팔리 웨라톤 호텔에서 졸업 45주년 68년 동기 모임이 있었을 때이다. 우리는 행사 하루 전에 도착해서 근처의 다른 호텔에서 투숙하기로 할 때였다. 물론 방 두 개를 내가 예약을 하였고 방 하나는 오션 프런트이고 다른 방은 오션이 보이지 않는 방이었다. 형은 기꺼이 오션이 보이는 방을 우리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다른 방을 사용했다. 물론 내가 방을 예약했지만 나는 그때 참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훌륭한 PMR 의사로서의 형은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베클리에서 살았고 나는 내 전공의 과정을 끝내고도 수십 년을 그대로 Georgetown Medical school Hospital이 있는 북 버지니아에서 살았다. 그래도 우리는 삼백오십 마일이라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서로 방문했다.

형은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가 학업에 충실했다. 아들들에게 평소에 말하기를 "너희들은 장래에 절대로 의사가 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한다. 그런데 역설적인 결과로 큰아들은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의대를 나왔다. 또 둘째는 웨이크 휘레스트 의대를 졸업했고 셋째는 조지 워싱턴 의대를 졸업했다. 이 세 효자 아들들이 각기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전문 의사가 되었다. 세 아들이 정착한 곳이 모두들 북 캘리포니아 Sacramento 근교라서 형은 은퇴 후 웨스트버지니아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사는 그곳, 엘크 그로브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동창회가 있으면 가끔 만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내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안부도 궁금하여 서너 달 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다. 그때 형은 십오 년 전에 후배 이기진(72)의 집도로 성공적인 힘든 심장수술을 받은 후인데도 골프도 치고 건강했다. 오랜 기간 당뇨병을 잘 다스려서 말초 혈관이나 신장에도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의 몸 건강 상태가 내 것보다 좋다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예전과 같이 부부 동반으로 골프도 하고 또 여러 번 요청도 있었던 형이 사는 곳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서거하다니 참으로 슬프다.

그리운 훈규 형!

우리는 이제 이 생에서는 더는 보지 못하게 되었네요. 안녕히! - 김진홍(68)



황훈규 동문의 장례식에 이건일, 송창호 동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먼거리를 와서 참석함

Memorial Service for Hoon Kyou Whang, MD.

Thank you for coming out today to help us celebrate the life of my father, Harry Hoon Whang, and to wish him a peaceful journey to the afterlife. When he started to feel ill a couple of months ago, he told me that: "Dying is hard. Living is hard, too." Everyone can draw their own conclusions about what that meant. There are no wrong answers. He didn't explain his statement. He simply left me to ponder it.

The "Dying is hard" part is easy to understand. There is obvious suffering from cancer. We take solace in the fact that Dad died peacefully in his sleep, in the comfort of his own home, and with loved ones around him. My mother was at bedside holding his hand for his last waking moments. Few could hope for a more merciful passing.

The "Living is hard, too" part is a little more difficult to decipher. Let me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it, starting with a little background information. Dad was born in Korea under Japanese occupation in WWII. He grew up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which time he experienced first-hand what it meant to go from relative wealth and comfort to sudden abject poverty and threat of homelessness. Yet with destruction all around, he kept hope and persevered. While helping to support his struggling family, he somehow managed to become a doctor and find a wife to start a family of his own. Then, despite his horrific childhood experiences, he volunteered for combat duty in Vietnam.

He told me that the thoughts of returning home to his family kept him alive there. Perhaps he had a guardian angel through all this. Because after returning home, he was offered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emigrate to the United States. So, began another journey that many of you might also find familiar.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s a dream for so many around the world. The promise of opportunity and prosperity can be thrilling. Yet, we all know that emigrating to America is no quick or easy task. Upon arrival he had only his wits

오형원 선배님을 그리며

나두섭 (73, 남가주)

보석같은 꽃들이 시들어지듯이
한번 왔다 가는것은 자연의 이치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지만

술술부는 바람 서늘해지고
하늘 높고 단풍지고 밤이 깊어가는 때에
갑자기 가시니 애절한 슬픔만 남았네요

할일 다 하셨으니 할말은 없고
누구나 다 한번은 가는 것이지만
막상 다가오니 어찌할바 모르겠네요

꿈속에서도 잊을수 없겠지만
보고 싶은 정 어쩔수 없겠지만
시간이라는 바람에 실어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생각이 나겠지요
그러면 작은 가슴속에 묻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리다

편안한 곳에서 안식 누리시기를
우리 다시 만나 헤어짐 없이 살아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나누어요

다시 만날때는
푸른 숲속의 고요한 호숫가에서 만나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고 싶네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애뜻한 정을
가만히 간직하고 살립니다



사진: 나두섭 (73)

and the debt of the cost of airline tickets.

Time to “put your head down and work,” as he used to say. And so he did, for 30 plus years of grinding it out through all the struggles well known to immigrants. The language and custom barriers, the xenophobia in both directions, the isolation, the limited opportunities, the burden of supporting family left in Korea and his own family on very sparse resources.

I have two brothers and the three of us together certainly did not make life any easier on this man while we were growing up. He tried to raise us in the disciplinarian style that is the norm for Koreans. Of course, my brothers and I were rebellious. But we came to understand that perseverance and hard work are the foundation for survival and any hopes for success in life anywhere.

Our father continued to make so many sacrifices to ensure that my brothers and I would be given the opportunities to find prosperity. He pushed us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as they came, and to make the most of them. We did not concern ourselves too much with how long or difficult these struggles might be. We knew that it was possible to overcome these adversities, because we saw it every day by watching our father.

Now that my brothers and I have our own families, we can reflect on the influence our father has had on us. Life can be hard. We learned from this courageous man that we can overcome all things with hope, faith, and a lot of hard work.

To me, that’s what it means that “Living is hard, too.” Dad, we wish you peace in heaven and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us here.

On an end note, our family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here in the church for your support. Community is important. Many of the opportunities afforded my family have come through the tightly knit Korean community that rallies around the church. We hope you continue to find strength in each other. God bless you all.

(Written by Kevin T. Whang)

미 독립기념일에 자네가

- 일찍 떠난 이승공(69)에게

서 량 (69, 대뉴욕)

ECFMG 시험의 후예인 우리는
바쁘게 지냈다 평생 뽀박질로
군의원 후보생 시절 새벽
M1 장총을 45°각도로 쏘던 그 뽀박질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얼마나/ 간곡히 부탁했으면 자네
의 슬픈 소식을/ 가족에게서 직접 듣는 대신 며칠 지나/ 몇 다
리 건너 전해 듣고 펄쩍 뛰며/ 쇼크를 준 자네도 참 자네답다
아이구 참

69년 70년 동기회에서 만날 때마다
“량이야, 너는 도대체 말이야,”하며 시비라도
걸 듯 소리치던 말이 반갑다는 속 빈 말보다
더 따스했다 자네는 진짜 절실한 친구였어

군의원 후보생 시절 하루는 자네가 “량이야/ 너 그렇게 군화
를 반짝이게 닦은 비결이 뭐냐”/ 하는 급작스런 질문에/ 내가
짐짓 모범생 티를 내면서/ “어, 그거야 구두 코에 성심껏 침을
뱉으면/ 돼!” 했던 일을 자네는 기억할 거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신봉하고 있다네/ 인생의 코빠기에 정성을 기울여/ 침을
뱉은 후 그때 그시절 그 그물망 수건으로/ 싹싹 문지르면 된다
그러면 삶이 반짝거린다

자네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일할 때 기습공격으로 찾아갔던 일!
그 전날 꿈에서 수경사 군인들이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하더라, 하던
그 구보로 그리도 급하게 갔느냐, 자네는
2023년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이승공 막내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속해 있던
69, 70 동기회 모임에 보낸 글**

My Dad

Dear family,
I know many of you are shocked and saddened by my dad’s death but please be encouraged that he passed peacefully without pain.

Each of us has a different story to tell about my dad or a different memory which they will cherish most.

My story is very simple: he was the greatest dad a son could ever wish for.

He protected me when I needed to be protected, He kicked my butt when I needed it to be kicked. He hugged me when I needed to be hugged. He pushed me when I needed to be pushed.

I am living an amazing life now because of him. My family is wonderful. My friends are supportive. My career is flourishing.

My dad made this all possible for me.

I am so heartbroken right now I feel so blessed and lucky to be his son.

My dad will continue be live through all of us, as we remember his determined yet kind mature and continue to spread that determination and kindness to those around us.

He lived a great life.

He always did his best until the very end.

Even in his last few days, he fought because he wasn’t sure how much time he had left.

At the end, he asked me to let him go without pain and he left peacefully without suffering.

He is in a better place now.

We will all meet him again someday.

Please share this with all family members so they know he passed peacefully and full of love at the very end.

Love, Paul

호기심과 치매

천양곡(69, 텍사스)

“아빠, 엄마 이게 뭐야?” 3살 넘으면 아이들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부모 에겐 귀찮지만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이 흥미롭다. 궁금하여 물어 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호기심에 차 있다. 내 나이 아마 5살쯤 되었을 때다. 아버님은 대동아 전쟁이 끝난 후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셨다. 우리 가족은 그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선친께서 커다란 괘종시계를 사 오셨다. 매시간에 맞춰 땡땡거리는 시계 소리가 어찌나 그리 신기한지 여러 가지를 물어본 기억이 난다.

호기심은 무언가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충동적 욕구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주로 먹이와 짝짓기에 집중되어 있는 동물에 비해 인간은 보상이 없는 대상에도 호기심을 품는다. 그리스 신화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인간의 호기심을 잘 표현해 준다. 에피메테우스 신의 아내 판도라는 남편이 벽장 깊숙이 숨겨둔 항아리에 호기심이 많았다. 절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지 말라는 말에 궁금해서 좀이 쑤셨다. 어느 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서 뚜껑을 여는 순간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등 모든 나쁜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인간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참기 어려운 마음 상태가 호기심이다. 힘써 알아봐야 별로 얻을 게 없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궁금증을 해결해야 마음이 시원해진다. 불확실성을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모든 연령 층에서 생기지만 전 전두엽 뇌세포들의 연결이 활발해지는 초등학교 시절에 특히 많고, 이후론 서서히 줄어든다. 노인이 되면 호기심이 떨어져 질문도 말수도 적어진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은데 뭔가를 자꾸 알고 싶어 하는 충동이 노인들에게 피곤한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맹수와 자연 재해 위험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살아야 했다.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척해도 일단 도망치고 보았다. 선블리 이게 무얼까 알아보고 행동을 취했던 호기심 많은 조상(지금으로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우리는 그때 도망쳐서 살아남은 조상님의 유전자를 가진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현대인은 호기심이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호기심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인간 본능의 하나로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 중 뇌에 정보들을 많이 주면 잠자던 호기심이 깨어난다. 19세기 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호기심은 “보다 나은 인지 기능을 향한 충동, 즉 잘 알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나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여 창의성을 높이려는 소망”이라 정의했다. 인간에게 호기심이 없었다면 지능을 높여 주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삶의 원동력인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다.

정신과 의사를 하며 보통 3가지 성격에서 호기심이 많은 것을 보았다. 하나는 이것저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인터넷 스크린에서 검색하거나 잡지를 들춰 보는 등 오지랖 넓은 사람, 다른 하나는 일상의 세상에 너무 걱정이 많고 알 수도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 보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또 하나는 무언가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어 하는 자기개발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다. 오지랖 넓은 사람은 양극성 장애 환자에 흔했다. 원시시대 때부터 지내온 공포 유전자의 힘이 강해 너무 안전에 신경 쓰는 사람은 불안증 환자들에, 매사를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강박증 환자들에 많았다.

공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호기심 장애(Curiosity disorder)라 부르는 질환이 있다. 세상에 호기심이 너무 많고 가끔 일상의 지루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무모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자주 생긴다. 그들은 어느 특정한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여 해답을 찾을 때까지 잠도 못 잔다.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사람의 뇌세포는 항상 예민한 과다 반응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여러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비되어 자극에 맞선다. 처음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나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뇌의 만성적 활성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져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게 되는 질환이다.

한편 호기심이 적어지면 생명력이 약해져 무기력해진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호기심이 우리 뇌를 자극하여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한다고 했다. 실제로 해마를 적당히 자극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감을 적게 만든다. 정서가 갖든 기억들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호기심을 잘 보존하여 후에 특정한 추억으로 남겨 놓을 수도 있다.

호기심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칼이다. 뇌를 활성화시켜 공

술술한 재미, 새들과의 대화

문성길(70, 남가주)



선배님들 중에 남가주에 사는 식물학대가 한 분은 남들이 못하는 DMZ를 정부 특별 허가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오랫동안(70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된 각종 식물 생태계를 연구 조사하며 업적을 쌓으신 분이 계시며 또 내가 살던 와싱턴 DC 지역의 다른 한 분은 꽤 오래전부터 바쁜 중에도 휴가 때면 카메라 들고 세계 방방곡곡을 찾다니며 각종 새들을 관찰 기록 보관함이 취미인 것을 안다. 소위 자연과 소통하는 분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집사람이 정원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작은 터전에 장미며, 난초, 백합, 코스모스 등등을 심고 정성껏 가꾸더니 얼마 전에는 새집을 사와 큰 나무 옆에 받침을 세워 걸어 놓았는데 다람쥐 녀석들의 휘방으로 정작 새들 먹이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고 하며 그들이 미치지 못하게 큰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새들 모이 집을 옮겨 놓았더니 좋아하는 새들, 특히 드물게 보는 파랑새(행운을 가져다준다는)들이 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집사람 덕분에 필자도 아침 식사하며 덩달아 즐기고 있다.

더 나아가 어디서 hummingbird 먹이 집을 사와 처마 밑에 걸어두니 말로만 듣던 처음엔 그 자그마한 새들이 한두 마리 오더니 얼마 아니 돼서는 떼강도(? ㅎㅎ)처럼 무리로 달려온다. 요즈음 그들을 보며 즐기며 촬영하느라 바쁘다.

부도 잘하고, 창의성도 뛰어나서 후에 유능한 정치가, 기업인, 학자, 문학자, 예술가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점은 판도라 상자 얘기처럼 쓸데없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화를 일으킬 수 있고, 호기심 장애로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등 정신질환에 걸릴 소지도 많다. 우리는 대체로 긍정적 호기심보다 부정적 호기심에 더 신경 쓰고 더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불도는 호기심을 억제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시인이요 화가인, ‘마리 로랑 생’은 이렇게 읊었다. “쫓겨난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자,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라고. 맞다. 잊혀진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 한 번 진행하면 다시는 후퇴할 수 없는 일방통

선배님처럼 찾아다니며 새들을 관찰 즐기지는 못해도 내 집에 찾아오는 새들을 내친 김에 좀 더 알아보니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다.

소개하면, 300여 종이 있다 하며(상주형, 계절형, 희귀형, 우연형 등 각 주에 따라 다름) 가주에서는 Anna’s(제일 많은, 0.1-0.2oz, 3-6gm), Ruby-throated, Rufous, Allen’s(가장 원거리 이주 편도 4000마일, Calliope(제일 작은 0.1 oz, 3-6gm, 흔히 발견됨) hummingbirds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심장박동이 빠른 만큼 나르는 비행속도 역시 빠르다(인간은 맥박이 분당 60에서 100, 운동 시 150 정도이나, hummingbirds는 평소 500내지 600, 날 때는 분당 1000이 된다. 비행속도 시간당 28마일이다.) 이주형은 겨울 동안은 멕시코, 중미지역에서 살다가 봄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해온다고. 부화 후 대부분은 첫해에 죽지만, 살아남은 새들은 7년의 평균수명.

Humming birds 이름의 유래는 전체 체중에 비해 가슴과 날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새 날개의 재빠른 운동으로 발생하는 소리(humming: 원뿔거리는 마치 콧노래 같다 해서)에서 왔다고 한다. 이 새들의 특징은 견지를 못하고 계속 날고 움직이기 때문에 체중이라야 해보았자 0.1-0.2 ounces(2.8-5.6gm)의 1/3 정도가 가슴 근육 살에 있단다. 시력과 청력은 좋으나 후각은 발달돼있지 않다. 운동량이 많아 끊임없이 에너지를 찾아다닌다고 한다.

암컷은 위장한 새 동지를 짓는 것부터 부화기 때까지 돌보는 모든 일을 한다.

mating 제외하곤 수놈들은 효용 가치가 별무인 것 같은 건--ㅎㅎ.

여느 동물과 비슷하게 수놈의 깃털 색깔이 더 요란한 이유는 암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니, ㅎㅎ, 동물들 뿐일까?

행 질환인 치매가 병 중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다. 그런 치매 환자도 추억이 담긴 호기심 많았던 기억은 늦게까지 지니고 있다. 노인이 되면 치매를 늦추기 위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치매는 노화의 자연적 과정이지 병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 기억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다. 앨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된다. 긴 세월을 시카고에서 함께 지낸 선배 한 분은 은퇴 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다. 뇌의 가소성 능력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아내의 기억을 되살려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최문숙 (고 정일한 '63 부인) 장학생 Samuel Shoun의 감사 편지

Good afternoon,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has had a hand in the process. To receive this letter and award is an accomplishment which I will hold on to for the rest of my life. What gives me the most support is not the financial gain that comes with this scholarship, but the knowledge that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that truly appreciate my work as a student and an athlete and trusts that I will make the correct decisions in the future. This may seem inconsequential to many people but this has given me the confidence to pursue my dreams once more.

I have returned to my studies with renewed vigor and I am approaching challenges with confidence. This award has given me a chance and I am certainly capitalizing on the myriad of doors it has opened up. I am continuing to pursue my dreams as a psychiatrist and my goals of medical school seem much more realistic and exciting.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and many things that I must accomplish to follow my dreams, but I can do them with confidence, knowing that the alumni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y in South Korea has approved of my ability as a student.

Thank you for this award and please look forward to my accomplishments not just as a student, but as a person. - Samuel Choun

김태웅(63) 장학생 3명중 Julia An의 감사 편지

Dear Members of the Dr. Taewoong Kim Scholarship Committee, I hope this letter finds you and your loved ones well. I am writhing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selecting me as a recipient of the Dr. Taewoong Kim Scholarship this year. I am deeply grateful and appreciative that you will be supporting me in funding the first year of my medical school education at the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Since starting school approximately ten weeks ago, I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ing and learning in my classes (Anatomy and the Art and Science of Medicine), joined various interest groups that introduced me to anesthesiology, otolaryngology, and oncology, started volunteering and shadowing physicians, attended panels by residents and attendings in various specialties, and started taking two extra Nexus Classes called “Surgical Skills” and “Advanced Medical Spanish.” In the coming weeks, I plan to get involved in the Global Surgery and Surgical Leadership group and start volunteering in EHHOP, a free clinic in East Harlem run by medical students and attendings at Mount Sinai.

This scholarship will provide me the opportunity to further explore and pursue my passions within medicine and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medical school, and I am immensely grateful. The scholarship will serve as a warm reminder of the responsibilities I have to uphold the values of medicine and strengthen my commitment to excellence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linical environmen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any time if there are any updates you would like during my academic journey. I thank you again sincerely for your generous support.

Sincerely, - Julia An

SNUCMAA 장학생 2명중 김형준 학생의 감사 편지

Hello, my name is Hyeongjun Kim and I'm a former RISD graduate, interested in pursuing a career in teaching art through the MAT art education graduate program at GMU(George Mason Univ.). One of the toughest decisions I had to make since graduating from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was whether to pursue my career in the industry or within the education department. The expectations I've set up with myself by attending RISD clouded my judgment on deciding the career path on what I wanted to do versus what I was expected to perform based on the reputation of my school. I've decided to take it upon myself to attend GMU as a graduate student for art education and with my master's degree, I wish to expand my horizon on society by constantly communicating my area of expertise to people of all age, gender, and ethnicity. My current financial status is too poor for me to continue my education without asking for loans which I've already amounted to over \$27,000 from the Federal Aid program the government offered me from my RISD years in 2017-2021. I am currently undergoing a non-paid full time internship program for my student teaching courses while undergoing three different part time jobs without a car to call it my own just to sustain the cost of my tuition. Furthermore, I am currently enrolled as a member of the Medicaid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which is offered to those who are especially struggling with financial need. Which is all the more reason why I fully appreciate the support I am receiving from SNUCMAA for awarding me with their scholarship for the year 2023-2024 so as to allow me to continue my education. Thank you agai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d I hope you continue to support many other future scholars in financial need much like myself.

Sincerely, - Hyeongjun Kim.

Lyon의 추억



이건일 (68, 남가주)

아! 리옹!
내가 파리 보다도 더 좋아하는 도시.

옛날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도 전에 리옹에 두어 번 들려 묵고 온 일이 있다. 두 번 다 Provence 다녀오는 길에 한번은 차를 몰고 올라왔고 한번은 Avignon에서 TGV를 타고 갔었다.

프랑스 아니 세계의 요리 중심지, 한때는 비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비단 유럽 산업의 중심지.

Lyon은 Antoine de Saint-Exupery의 고향이고 그의 이름이 붙은 Air Port (Arroport de Lyon-Saint Exupery)를 가진 도시이다. 그는 '어린 왕자(Petit prince)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이지만 Euro화가 통용되기 전에는 50프랑 짜리 프랑스 지폐 (1993년 발권)에 그의 얼굴이 사용되었던 프랑스의 영웅이었다. 그는 프랑스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Mort pour la France) 그의 작품들은 2045년 1월 1일까지 저작권이 보통 생애 + 70년에 30년이나 더 연장되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상업 비행사로 또 우편물 비행사로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활약하였고 2차대전 발발과 함께 프랑스 공군에 입대하였다. 1944년 7월 31일 콜시카에서 이륙하여 지중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격추되어 실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실종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Lyon은 Rhone와 Saone 두 강 사이에 위치한 프랑스 제3의 도시이다. (1위 Paris, 2위 Marseille).

리옹은 율리우스 시저의 부하였던 Munatius Plancus에 의하여 43 BC에 로마의 식민지로 Lugdunon이라는 Gaul 사람들의 마을 자리인 Fourviere 언덕에 세워졌는데, 이 이름은 켈틱어로 Lugus (빛)와 dunon(언덕-요새) 합성어로 '빛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다.

리옹은 사온 강과 론 강 사이에 위치한 Presqu'île이라는 반도에 있는 역사적 시 중심부와 서쪽과 북쪽에 있는 두 개의 언덕과 동쪽에 펼쳐진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의 언덕은 Fourviere(기도의 언덕) 지역으로 Notre-Dame de Fourviere Basilica, 수도원들, funicular(케이블카) 등이 있고, 북쪽의 언덕은 Croix-Russe(일하는 언덕)으로 비단 산업으로 번창하던 곳이었다. 중세부터 있었던 구 시가지 중심부(Vieux Lyon)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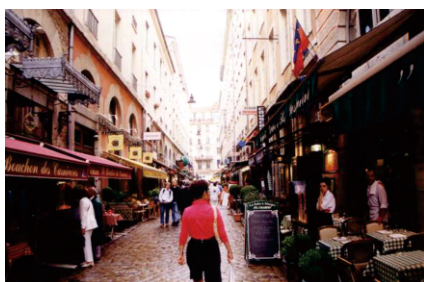
Fourviere 언덕 아래 있으며, Presqu'île과 Croix-Russe 지역과 함께 Unesco World Heritage Site로 지정되어 있다.

나는 두 번 다 이 Fourviere 지역에 있는 Villa Florentine이라는 조그만 호텔에서 묵었는데 2층에 있는 방(Rm 8)에 들면 리옹 시내가 침대 밑 발아래 펼쳐진다. 그리고 이 호텔 레스토랑은 "Terrace de Lyon" 이라고 내가 갔던 당시에는 Michelin 2 Etoiles(star)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호텔은 전에 수녀원이었다고 한다. Notre Dame de Fourviere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가까운 쪽이 Saone 멀리 Rhone 강이 보인다.



Villa Florentine Lobby에서 내려다 본 리옹 시 Lyon 시 자체는 2019년 당시 인구가 522,969명이고 Lyon metropolitan area는 인구 2,280,845명이다. 로마 제국 당시 Gaul인들의 수도였고 르네상스 당시에 주요 도시로 커지게 되었다.

이 도시는 요리로 유명하며, 역사적으로, 또 건축학적으로 주요한 건축물들이 많다. 또한 한때 비단 생산과 직조의 중요한 중심이었다. 또한 영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 자체를 발명한 Auguste와 Louis Lumiere 형제가 여기 출신이기 때문이다. 리옹은 은행, 화학, 제약, biotech 산업의 주요한 중심지이다.



리옹 시내의 먹자 골목. 어디부터 들려야 할지 참 난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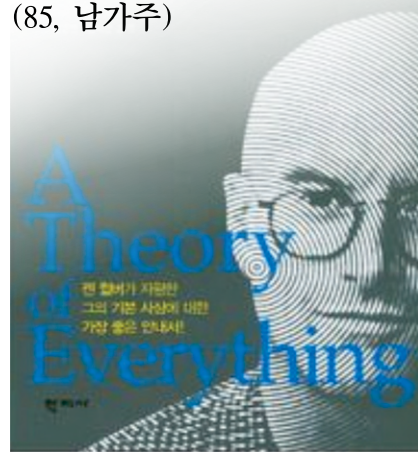


리옹 시 중심부. 멀리 언덕 위에 Notre Dame de Fourviere Basilica가 보인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그 바로 밑에 있었다.

시내에는 실크 박물관, 인쇄 박물관 등 볼 것이 많고, 눈이 돌아가게 예쁜 실크 의상과 여러 실크 제품들을 진열한 거리와 수많은 Gourmet Restaurant들이 늘어서 있어 녀를 잃게 만든다. 한 번쯤 꼭 가 보아야만 하는 도시이다.

켄 윌버의 미래의 종교 요약

김자성 (85, 남가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 흔재하는 세계 종교와 다원화된 전통에서, 그 속에 발견되는 귀한 가르침을 제련해서 소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일을 한 대표적인 통합 이론가가 Ken Wilber이다.

그는 약관 24세 경 쓴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자아초월 심리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났고, 그 이후 오십여 년 집중적인 집필활동으로 동서양의 모든 종교적 영적 전통, 서양 철학의 주요 사상 및 현대 심리학, 특히 발달 심리학의 정보 등을 종합한 통합 이론을 제시해 왔다. 그가 가장 최근에 집필한 책이 <미래의 종교>이다. 필자는 지난봄 북미주 서울의 대연례 학술 모임과, 또 미주 서울대 동문회, 온 라인 포럼에서 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 지면에서 그의 사상과 책을 요약 소개한다.

그의 이론은 진정한 통합이론인지라 종교나 정신과학 영역뿐 아니라 일반 의학, 정치, 경제, 문화전쟁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제반 문제의 이해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다. 또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생활 수련>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 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이다.

그는 각 종교의 미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네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가 Growing Up, 즉 성장의 길이다. 성장에 대한 체계적 이론/발견은 최근 백여 년 서구 심리학자들의 체계적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이미 이천 년 이상의 고대 세계에서 성립된 지라 그 시대의 세계관인 주술적 신화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켄 윌버는 James Fowler의 <믿음의 단계>를 인용, 인지 발달에 상응하는 믿음의 방식이 발달 단계를 맞게 각 종교의 가르침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즉 합리적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의 개인들에게 기존 종교가 적절히 재해석된 메시지를 주지 못함으로, '아기를 목욕물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Waking Up으로, 깨어남, 영적 체험을 위한 수련의 필요성이다. 이 부분은 이미 동양 종교에서는 참선, 명상수련 등의 이름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독교의 경우 역사의 초기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개인들을 종교재판, 마녀사냥 등으로 억압해 온 역사의 영향으로 거의 표층종교에 머물러 있기에 앞으로 특별히 강조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나 이슬람의 종파가 문자적인 수준의 표층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의 상위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에서 QT 등 명상 수련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좋은 움직임일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Cleaning Up인데, 심리 정신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인간은 발달 과정의 매 단계에서, 그 단계에 고착되거나 혹은 반대로 기피, 알리지 반응 등으로 여러 종류의 심리적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다. 명상지도자 겸 정신과 의사인 Roger Walsh는 수행자들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경험을 통해, 수행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80%는 대개 정신, 심리치료적인 문제들이었다고 보고한다.

네 번째 영역은 Showing Up이다. 그

의 이론에서 독특한 것이 사분면 이론인데, 우주정신이 우주에 현현하는 방식이 사분면으로 동시적으로 나타남을 얘기한다. 개인적 내면(일인칭 영역)과 외면, 집합적 내면(이인칭 영역)과 외면으로 나누고, 또 집단의 내 외면을 합쳐 객관적, 삼인칭 영역으로 묶으면 삼분면으로 요약된다. 이는 철학의 세 주제인, 진(삼인칭), 선(이인칭, 우리 사이의 관계, 도덕), 미(일인칭, 내면적 주관적 면)의 각 부분에 상응하고, 또 불교의 불(일인칭, 깊은 나), 법(삼인칭, 객관적 법칙), 승(이인칭, 나와 너의 관계, 도덕), 혹은 기독교의 성자(일인칭의 깊은 나), 성부(이인칭, 영원한 너), 성령(삼인칭, 객관적 우주정신) 등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칸트의 삼대 비판인 순수 이성 비판(삼인칭, 객관적 이성), 실천 이성 비판(이인칭, 서로에 대한 도덕), 판단력 비판(일인칭, 내면적)으로 상응할 것이다. 즉 우주와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 이런 사(삼) 분면, 즉 내면적인 정신, 또 두뇌 등 외면적 몸, 또 나와 너, 우리 사이의 관계, 또 객관적 사회제도나 기반 구조 등 모든 면들이 동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전인적인 접근법이다.

그는 이런 이론에 근거 <통합적 생활 수련>을 매일 일상 삶에서 실천할 것을 권유한다.

그는 우주 역사의 전개를, Spirit in action이라고 요약할 만큼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전근대적 세계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신화적이고 마술적인 단계였고, 현재 세계는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라면,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통합적인 단계에서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세계관, 그래서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과학과 무리 없이 통합되는, 정말로 가장 정교한, 우주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세계관으로 될 것을 기대한다.

그에 의하면 발달은 끝없이 전개된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들은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발달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게 현실인지라, 어쩌면 은퇴 후가 이런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개인적 성장, 영적인 깨어남 등을 위한 최적기일 것이다.

그는 현재 인간 의식의 최첨단 성장관에 해당하는 <통합적 사고>의 단계에 이른 개인이 약 5%라고 한다. 또 역사적으로 성장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에 이르면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통합적인 사고의 단계로 되는 노력이 있다면, 지금처럼 사회계층 간에 극도로 분열된 문화 전쟁의 문제가 해결될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통합적 생활 수련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명상 수련을 강조하는데, 사회의 의식 성장관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동문들이 이런 명상수련을 통해 의식의 확대, 발달에 노력을 더한다면 전 사회적 규모의 의식의 성장, 발달에 힘을 실어주는 고귀한 일이 될 것이다.

조남현(70) 동문 부인의 작품 전시회

안녕하십니까? 70년도 졸업 조남현입니다.

제 부인의 작품이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HMAAGW)의 juried exhibition에 아래 작품들(3 paintings, series of Maranatha, 5, 6, 7)이 선택되어 메릴랜드 Arnold에 있는 Cade Gallery에서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전시됩니다.

BmoreArt magazine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이덕송 (61, 남가주)

우리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한 여름휴가로 손자, 손녀 포함해서 8 식구가 함께 알래스카 크루즈(8월 14-21일)를 다녀왔다.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땅이다.



알래스카 크루즈 일정 중에 하이라이프는 바로 글래시어 대공원이다. 웅장한 빙하를 크루즈 배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에 못지않게 감격스러웠던 장면은 주노의 고래 관찰 투어였는데 이 광활한 대지가 미국 영토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준 선장의 애국심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Disney Cruise Line에서 내려 50명

탐승 정원이라는 유람선에 몸을 싣고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고래들이 꿈틀거리는 묘기를 보고 돌아오는 관광이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몸매의 남자가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러분, 고래 관찰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Huna Raven 호의 선장인 Joe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고래를 목격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고래를 볼 수 없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100% 보장합니다. 혹시 고래를 보지 못하게 되면 1인당 100불씩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탐승자들은 고래의 출몰을 이미 보거나 한 듯 서로 마주 보며 좋아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배는 대해를 향해 출발했다. 항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좌, 우로 둘러싸인 푸른 숲과 우뚝 솟은 나무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향해 달리면서 선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래스카는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67년에 미국 정부가 제정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을 주고 사들인 땅입

니다. 요새 720만 불이면 295만 불을 호가하는 LA의 고급 주택을 2채 반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지만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엔 벅찬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힘든 일을 주도한 인물이 William Sewad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를 구입하기 위해 ‘눈 속에 감춰진 보물들을 보자’고 설득했지만 미국의 의회와 언론은 매우 부정적이면서 알래스카를 ‘수위드의 얼음 박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의 미래 가치를 예측한 수위드 장관은 어려운 난관을 뚫고 땅을 매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William Seward와 Abraham Lincoln은 같은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경쟁자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명도에서 수위드가 앞서 있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수위드는 링컨에게 역전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위드는 경쟁자였던 대통령 후보 링컨의 지원유세에 열정적으로 후원을 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그에게 국무장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로 선장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배는 이미 고래가 출몰하는 장소에 도달했고 잠시 후 한두마리의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낼 찰나,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소가 벌어졌다. 큰 고래 한 쌍이 수면을 뚫고 솟아오르더니 풍덩 소리도

요란하게 내면서 물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한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저 한 쌍의 고래를 보셨지요! 왼쪽의 큰 고래가 링컨 대통령이고 오른쪽의 조금 작은 고래가 수위드 장관이었습니다.”



선장이 이름 붙인 링컨(좌)와 수위드(우) 고래

운 좋게도 큼직한 고래 한 쌍의 출현을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본 우리 일행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사라지는 고래 꼬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분주했다.

이번 알래스카 크루즈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면 온갖 원시의 야생을 간직하고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 품고서 살아 숨쉬고 있는 땅! 알래스카를 직접 대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보배의 땅을 예측하고 모든 부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래스카 매입에 성공한 위대한 인물을 재조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링컨이 미국인에게 위대한 것은 두 동간 난국론을 통일했기 때문이고 수위드가 대단한 것은 미국의 장래를 내다본 정치 파트너십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만약 링컨과 수위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어땠을까...?

고다이바 夫人 Lady Godiva -노출증의 代母



김창남 (69, 대뉴욕)

영국 코벤트리란 지방에서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 때문에 끼니를 이을 수 없다는 하소가 영주의 부인, 고다이바 부인에게 들어간다. 고다이바 부인 자비심을 발동 남편에게 간청, 가난한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 나가기 힘들다 하니 세금을 내려 주십시요? 주민들이란 불평하듯 태어난 무지렁이들이요. 귀담아듣지 마시오! 한마디로 일축, 고다이바 부인은 아마 바가지를 굶도록 태어난 여자인 듯하다. 끈질기게 대든다. 마누라의 집요한 바가지를 견뎌낸 남편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명이 한자나 된다고 알려진 이 영주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공짜가 어디 있나? 부인에게서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장마당을 통해 마을을 한 바퀴 휘-익 돌고 오면 부인 말 들어 주겠소! 도저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내거는 거다. 감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 했지만 이 영주, Leofric 백작, 마누라 잘못 봤다. 고다이바 부인, 여섯 자 머리로 치렁치렁 앞을 가린 채 알몸으로 말 등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다. 고다이바 부인의 고결한 행동(귀부인이 서민들의 장마당에 알몸을 보인다는 건 그리 고결해 보이지 않으나 그 동기만은 고결하다.)에 감복한 주민들은 모두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빗장을 내려 보지 않기로 서약한다. 귀부인이 베풀어 주는 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대 그 알몸을 보는 무례를 저지르지 말자는 주민들의 보은(報恩)성 단체행동이였다. 단체행동에는 언제나 이탈자가 생기게 마련. 토마스란 사내 창문 틈으로 내다보려 했다. 이 사건은 서기 1000년대에 벌어졌었다. 내다보려는 시도는 했으나 성공은 못한다. 내다보는 순간 실명했다는 거다 실명했을 뿐 아니라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 한다. 하여간 톱(peeping Tom)은 관음증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다.

팔백 년 후, 1842년에 당시 영국의 계관사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 이 이야

기를 들곤 시로 읊는다. 위의 내용은 테니슨의 시를 따른 것이다.

나는 지금 고다이바 부인이 살았다는 코벤트리 市로 가는 런던 발 급행열차 안에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드러난 것은, 우선 의심 하고 본다, 고로 존재한다는 현대인으로 서의 뼈뺀 태도가 아니라도 주민의 세금 인하 때문에 알몸으로 장터를 활보했다는 얘기가 어쩐지 석연치 않다. 너무 청결하다. 고결한 행위 바닥에는 노출에 대한 숨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 아냐? 욕망의 만족을 위한 무의식적인 꿈수 아니었나? 노출증은 성적 흥분 그리고 그 흥분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라지 않나? “그녀는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분수대의 물꼭지는 교활하게 힐끔거리는 듯했고 개 짖는 소리에 마저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말발굽 소리는 쿵쿵거리는 그녀의 가슴과 박자를 같이했고, 세상이 온통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나무 사이의 틈, 서있는 흥상들의 눈 모두 자기를 향한다.” 테니슨의 시에 의하면 고다이바 부인, 순간순간 흥분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흥분이 성적 흥분이 아니라면 무어란 말인가!

그리고 남편 레오프릭 백작? 마누라를 알몸으로 장터를 돌게 하는 이 친구 역시 변태 아냐?

변태(성욕자) 혹은 도착증이란 뭔가? 변태(變態)가 있으면 원태(原態)(?) ? 바뀌기 전의 모습 -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프로이트는 음경의 침투에 의한 성행위를 정상 원사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는 성적 흥분 만족을 위한 어떤 행위도 변태가 되는 거다. 이 영주 부인, 알몸을 대중 앞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모종의 흥분 그 만족을 얻었다면 당연히 변태의 범주에 들어가겠다. 그런가?

뒤이어 프로이트는 영유아에서 多形도착, 여러 가지 모습의 도착 현상(polymorphous perversion)을 발견하

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도착, 변태가 시작되는지 두북모처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다.

바우보(Baubo), 여신 혹은 마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 딸 페르세포네(Persephone)이 하계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 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 “얼굴에 웃음기는 가셨고 식음을 전폐” 사방을 헤맨다. 아무도 그녀를 우울의 늪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 일레스우스의 왕 그녀를 위로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한다. 모든 시도가 허사인 듯싶었을 때 바우보를 끌어드린다. 걸직한 농담이 장끼(長技)인 나이 적당히든 여자다. 각종 야한 외설한 농담 끝에 술잔을 권하나 데메테르 단호히 거부. 이때 바우보, 치마를 걷어올려 그녀의 은밀한 부위 소중한 부위를 노출시킨다. 이 우스꽝스러운 짓에 데메테르 폭소를 터뜨린다는 게 바우보 신화의 개요다. 흑자는 바우보를 접잡지 못한(외설한) 코미디언이라 명명해 코미디를 통해, 장난스러운 활기로 폭소를 유발, 우울이란 단단한 껍질을 부숩버린 거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바우보의 행위, “치마 걷어올리기”에 내재하는 막강한 주술적 magical 인 힘 때문에 데메테르가 웃음보를 터뜨린 거라 한다. 바우보의 행위에 대한 결이 다른 이해다. 하지만 난 다음의 견해에 더욱 동조한다. 여보시게, 데메테르 神! 내 지금 그녀의 역할을 하고 당신은 여신이라지만 우리 모두 여자지? 강력한 동료의식이다. 우리 이 소중한 걸 함께 갖고 있는 거요. 육체적인 쾌락의 원천이기도 하고 생명의 기원이기도 한 이 소중한 보물을. 또 산다는 뎀 상실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 두시게! 하여간 데메테르는 크게 웃는다. 웃음이 제공하는 해방감 안도감! 또 치유력. 웃음은 최고의 영약이라 하지 않나? 우울증은 치유되고, 데메테르는 종래의 평정을 되찾아 딸의 아버지 제우스를 설득, 하데스와의 회담을 성사시킨다. 대지의 관장(管掌)이란 본래의 임무로 돌아간다. 곡식은 익어가고 산하는 다시 생기로 짙어 찬다.

치마 올리기

도대체 이 치마 올리기라는 건 무언가?

외설인가? 주술인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는 일, 알 수 없으나 이 전통은 마디 그라(Mardi Gras) 축제로 이어지고 원초적 본능의 Sharon Stone에까지 이른다.

뉴올린스의 버번(bourbon)街 이른 아침, 간밤의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한다. 마디 그라 축제가 공식적으로 끝난지 이주 밖에 안되어서 인가? 아니면 프렌치 쿼터의 버번가는 늘 그런 건가? 술 냄새가 찌들게 배어 버렸다는 건가? 아니면 유전자의 농간으로 이 거리 생길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건가? 하여간 쉬 없어 질 성질의 것이 아닌 듯싶다. 늦은 오후에 갔을 때도 술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자가 느닷없이 치마를 걷어 올린다. 아빨싸! 비드(beads)를 던져야 된다는 걸 잊었구나! 근처 상점에 들어간다. 플라스틱 비드들이 주렁주렁 걸려있다. 여남은 개 들고 카운터로 향한다. 가격이 높다. 치마를 걷어 올리는 여인에게 비드를 던지지 않는 무례, 다시는 범하지 않으리! 하루살이보다 짧은 순간적 사랑일망정 놓치지 않으리.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Sharon Stone, 취조관을 앞에서 취조를 받는 중 한쪽으로 꼬았던 다리를 다른 쪽으로 바뀌는 도중 가랑이 사이로 음부가(바우보처럼)보였던가 안 보였던가? 영화를 다시 봐서 확인해? 하여간 다리 꼬고 앉아있는 스틸 사진은 그녀의 아이콘으로 널리 퍼졌었다.

섹스팅 Sexting

Feminist 철학자 식수(cixous), 여성은 몸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그들의 관능을(sensuality) 망설이지 않고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의 노출 현상을 男根 선망(penis envy)이니 결여되어 있는 것(lack)에 대한 보상작용이니 하며 폄하하던 프로이트 식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내 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무한한 기쁨의 원천 아닌가, 게다가 야기까지 가질 수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몸인가!의 기치 아래 십 대의 여자애들은 스스로의 알몸을 찍어 보이 프렌드에게 텍스트(영상) 메시지로 보낸다. 소위 섹스팅이다.

고다이바 부인, 바우보, 마디그라의 여인들 Sharon Stone, <다음면에 계속>

금강산 金剛山

서윤석(68, 버지니아)

철책 건너 산 넘어 달려온 북녘땅에도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
둥근 모자를 쓴 검사관
목에 걸친 이름표를 바라보는 매서운 눈초리

새 한 마리 훨훨 구름 사이 산자락을 돌고
고개를 돌리니 화강암 명산의 입구
단풍이 불타는 이 계절에
소나무들 날카로운 손을 뻗어 줄을 쫓고
감회와 기대와 공포가 엇갈리는 낮 선 곳이니

녹슨 철길이 멈춘 온정리 역사驛舍는 비어있고
이곳이 반세기 전 격전 지대
피투성이 된 형들이 터트린 탄피
아직도 계곡의 바위 틈에 박혀있구나

선녀와 나무꾼이 목욕하던 초록빛 상팔담 물
구룡 폭포에서 하얗게 부서져 동해로 흐르고
오늘은 풀벌레 가늘게 우는 밤,
금강산 호텔 패디오에서는
쟁반에 담긴 시원한 고려맥주 한 잔에
침 속에 감도는 송이버섯 향기롭네

정가제定價制 입네다, 선생님 하는
유니폼을 입은 그녀
쌍꺼풀 진 눈이 곱게 깜박이고
촉촉한 분홍 입술에 달빛이 닿는구나
우리는 아마도 한핏줄
디지털 사진을 찍어 보고 같이 웃었지

붉은 배지를 옷깃에 단 낮 선 사람들은
누구네 집 사람일까? 같은 고향 사람일까?
뺨건 가시 돋친 철조망에 성난 파도가 부딪치고
어뢰와 지뢰가 묻혀있는 금수강산 너무 아프지 않겠느냐?

두고 온 고향 마을의 부모형제 다 떠나고
시들어가는 이 실향민을 누가 알아볼 수 있으랴
꿈속에서나 불러보는 내 노래
금강산에 살어리랏다 살어리랏다
우리 금강산에 살어리랏다

*2005년 10월 초 고성군 금강산에서 기록하여
2023년 휴전 70주년과 고마운 한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

Mount Kum-gang

Seo Youn-seok

In the northern land whereto we hastened across the barbed fence
People have indeed been living:
The sound of people calling for one another,
The inspectors wearing round caps,
The hawk-like eyes cast on the nametags hung on our necks-

A bird swirls around the hill, waving its wings through clouds.
As I turn my head, the entrance to the rocky mountain is there.
In this season when leaves are all red, as if aflame,
Pine trees are standing in a row, stretching their sharp arms.
An unfamiliar place where sentiments, expectation, and fear commingle!

The station of Onjong-ri where the rusty rails stop is empty,
Reminding that half of a century ago it was a bloody battlefield;
The cartridges and shells that our blood-soaked brothers spilt
Are still stuck in between the rocks in the valley!

The green water of the pond where a fairy and a woodcutter bathed
Becomes shattered to white water-drops at the Nine-dragon Waterfall
To flow down into the East Sea, while faintly chirp the grass insects tonight.
In the patio of Hotel Mount Kum-gang
I gulp down a glass of cold beer "Koryo," while
Pine mushroom's fragrance lingers in my mouth.

"The price is fixed, sir."
So says a young woman wearing a uniform.
Her eyes under thin eyelids blink to mesmerize me,
All the while moonlight falls on her moist pink lips.
"In our veins, the same blood flows, for sure."
We laughed together, after taking a digital photo.

Those unfamiliar men who wear red badges on collars-
Who are they? Are those from the same hometown?
Upon the barbed wires bearing red thorns the furious wave clashes;
Won't the golden-laced land feel much pain, containing torpedoes and mines?

Having left our parents and brothers and sisters at home,
We wither away like dry weeds. Who can recognize us?
This song one may sing only in a dream:
"Let us live in the Mount of Kum-gang,
Let all of us live in the Mount of Kum-gang till we die."

Translated by Sung-Il Lee,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at Yonsei University



<전면에서 계속> 이십일 세기 십 대 여자 애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들의 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다. 여성의 몸이 지니고 있는 마법적인 힘을 이용, 고다이바 부인은 남편의 稅收를 찬탈 주민들에게 인심을 썼(을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꿈틀거리는 관능을 표출했)고, 바우보는 음부를 노출, 여신의 폭소를 유도, 우울증을 치료했고 마디그라의 여인들은 비드로 상징되는 남성들과의 순간적인 관능을 즐겼고 샤론스톤은 보일 듯 말 듯 다리 꼬고 앉기로 취조관 및 남성 관객들의 시선을 강탈하지 않았나! 그리고 스팅의 십대들은 보다 직접적이다.

열차를 내려 코벤트리 시내로 향한다. 市 안내센터의 젊은 여직원이 상냥하게 설명을 한다. 고다이바 투어는 시간이 늦었다며 어디 어디 가야 할 데를 지도에 마크를 해가며 꼭꼭 짚어 준다. 시내 광장에 있는 고다이바 부인 동상까지 걸어서 십여 분 이면 된단다. 매일 정午엔 시티센터 시계탑에서 창문으로 고다이바 부인이 지나가고 그 위에는 피핑 톰이 나

타나 고개를 뺨 단다. 점심 먹느라 정신이 팔려 고다이바 부인과 피핑 톰을 친견(?) 할 기회는 놓쳤다.

뮤지엄의 공식명칭은 허버트 뮤지엄이고 일층 한 쪽에 고다이바 부인 관이있다 문간에는 피핑 톰이 수문장처럼 지키고 서있다. 각종 포즈의 고다이바 부인 초상이 걸려있다. 모두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림들이라 새로울 건 없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테니슨의 시 '고다이바'가 발표된 이후에 그려진 것들이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광장, 그 정면에 동상이 광장을 굽어보고 있다. 긴 머리로 치렁치렁 앞을 가린 고다이바 부인 말에 올라있다. 용감하고 대답했던 여자, 현대 여성운동가들의 사유(思惟)를 천년 전에 실천했던 여자, 몸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았고, 그녀의 관능을 숨기지 않은 고다이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 잔등에 올라있다. 자신의 이름이 정신과의 범주를 넘어 세계 만방에 퍼지리라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벨지안 초콜릿의 달콤함으로.

시계탑 10월호 편집회 초록



Zoom으로 10월 14일(토) 동부 시간 오후1시에 열렸다.

노영일, 서윤석, 서량, 황창근 사장, 제이미 김 사무장이 참석했고 미리 전화를 해온 박은경 위원과 인터넷으로 원고 교정에 기여하는 서귀숙 위원은 따로 관여했다. 개회선언에 이어서 작고하신 동문들에 대한 묵념, 재무보고, 들어온 원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호에 실릴 회칙 개정안과 2023년 새 주소록 발간에 대한 편집장의 경과보고와 위원들의 각자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11월 15일로 마감하여 주소록을 정리할 것임을 결정했다. 요즘은 거론되고 있는 개인 정보유출 법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 무리하게 제2세대를 준회원으로 영입하는데 예상되는 모순점을 인지하고 주소록에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하면 좋겠다고 참가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충분한 양의 원고와 장학기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편지도 많이 들어 왔다. 지난 3개월간에 훌륭하신 12분의 미주 동문이 작고했으며 그들을 기리는 그 조사(조시)도 함께 올린다. 삼가 별세하신 동문들의 명복을 빈다. 다음 편집회는 2024년 1월 13일로 예정하고 기념 촬영 후에 헤어졌다. - 글: 편집장

핑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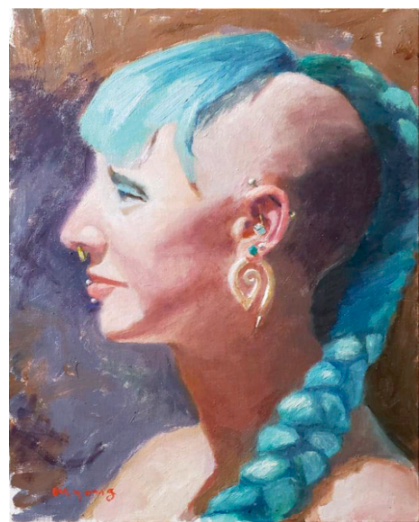


김명원(68, 남가주)

굵게 땀은 머리가 치렁치렁 발뽀꿈치에까지 내려왔다. 머리의 양쪽은 뽀뽀 밀어 버렸다. 땀은 머리가 파란색이니 망정이지 누런색갈이었다가는 구렁이인 줄로 알고 질겁을 했을 거다.

맨살을 뚫어서 꿰어 놓은 귀걸이만도 5개에다가 코걸이가 하나 입술 걸이가 하나 모두 7개의 고리로 단장을 했다.

이름도 괴이한데 여기서 실명을 쓸 수가 없으니 그냥 'K'라 부르자.



화실 방에 들어서자마자 Costume을 원하느냐 누드를 원하느냐 묻지도 않고 흘러팅 다 벗어던지고 모델 대 위로 올라간다.

매번 20분 포즈를 취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Robe를 걸치지 않고 내려와 벌

건 알몸뚱이로 이젤 사이를 누비고 다니다가 남들이 그린 자기의 나체상을 들여다보며 수다를 떨곤 한다.

K 같은 패션 스타일을 핑크스타일이라고 한다. 핑크는 197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은 주류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고 DIY 사조 속에서 패션도 상업성을 거부하여 개인의 창의적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권위에 대한 반항정신은 전통과 관습의 틀에 갇힌 기존의 美와 패션의 개념에 도전하여 의도적으로 추하고 불결해 보이는 미학(Grungy Esthetic)을 만들어 냈다.

길거리에서 어쩌다 보게 되는 핑크 차림의 사람들은 웬지 가까이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멀리서만 보았지만 이렇게 근접해서 보기는 처음이다.

1960년대의 히피들은 전통과 권위를 불신하면서도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고 가사도 달콤하고 로맨틱했다. 반면에 1970년대의 핑크족은 히피족 보다 더 공격적이며 노래 가사도 도발적이고 멜로디와 템포도 거칠고 원색적이다.

영국의 Sex Pistol이라는 그룹의 'God Save the Queen'을 들어보라.

앨범 재킷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커다란 옷 핀으로 코를 꿰어 놓았다.

Safety Pin은 핑크들이 자주 쓰는 액세서리의 하나다.

K가 돌아다니다가 내 그림을 들여다 보더니 "I like it!" "I like it a lot. Wow!" 하며 감탄을 한다.

남들은 다 누드 전신 상을 그리는데 나만이 그녀의 얼굴을 실물 사이즈로 크게 그리고 있었고 더구나 그녀의 자존심일터인 귀걸이를 하나하나 실물 그대로 그리고 있으니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다.

누드야 노상 그리는 거지만 핑크 모델은 자주 볼 수 없는 거라 생각하니 핑크의 패션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초상을

그리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 일 것 같았던 것이다.

예의상 그녀의 칭찬에 대꾸를 한답시고 그 긴 머리가 무겁지 않느냐고 물었다. "No, not at all. You wanna check it out?" 하며 사양할 틈도 없이 나의 손위에 돌돌 감은 머리 타래를 올려놓는다.

영겁결에 받았다가 타래가 저절로 슬슬 풀어지는 바람에 손에서 놓쳐버렸다.

"Oh no, I am sorry. I didn't mean to drop it like that."

"It's ok. Nothing's broke."

나는 크게 당황하고 미안해하는데 반해 K는 별로 기분이 상한 것 같지가 않다.

무게를 가늠해 볼 사이도 없이 나는 왜 그걸 그렇게 황망히 떨어뜨려 버렸는지 또 왜 그렇게 과장되게 사과를 했는지 모를 일이다. 징그러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아무리 머리카락 다발이라 할지라도 별 거벗은 여자의 신체발부를 나의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Remote(원격적으로)하게나마 불륜스럽게 느껴진 모양인가.

나 같은 부양무괴(俯仰無愧) 한, Happily married man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능히 가능한 일이다.

자기 초상이 어찌 돼가나 궁금했던지 K가 자주 와서는 한마디씩 하고 간다. 귀걸이 그리기를 다 끝낸 것을 보더니 K가 곧 귀걸이를 하나 더 할 참이란다.

"You got no more spot in your ear for another piercing." 했더니

"Yes I do. I'm gonna have a tragus ring."

K는 내가 예상한 대로 레스비안이었다. 동거하고 있는 그녀의 파트너가 마약을 끊은 지가 일 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 트래거스 링을 하나 달려고 하는데 자기도 함께 할 거란다.

"What is the tragus ring?"

"Tragus is this thing right here, you see?"

자기의 뺨을 들이대며 보여 주는데 보

니 바로 귓구멍 앞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다.

어쩐지 '트래거스'란 말이 귀에 설지가 않더라니. 트라구스니 헬릭스니 등은 학교 때 다 공부한 귀 부위의 해부학 용어들이 아닌가.

그녀의 설명을 듣기 전에 '트래거스'가 핑크족 Fashion의 대부 이름쯤이나 되려니 생각했던 거였다.

그림을 그리며 모델과 이렇게 많이 수다를 떨어 보기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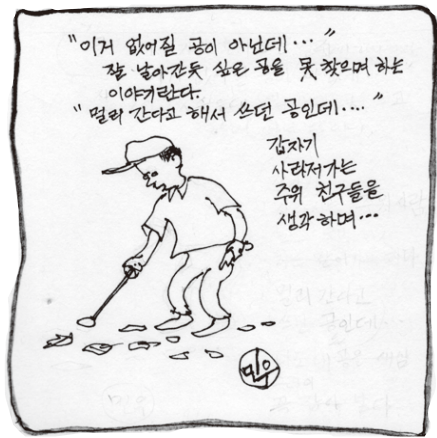
불쌍사나운 코뚜레와 괴이한 헤어스타일의 물골을 처음 보았을 때는 오만 정이다 떨어져 버렸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애가 보기처럼 그렇게 아주 생각이 없는 애 같지는 않다. 핑크라고 다 피하고 업신여길 것은 아닌가 보다.

날 보고 그림을 팔 거냐 묻길래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라고 했더니, 자기의 취미는 가끔 풀밭에 누워 높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란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왜 그런 취미를 갖게 됐느냐 물어보지는 못 했다.

개미들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서 한치도 위로 날지 못하는 고된 삶을 살다가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나?

하늘을 쳐다보는 취미의 이면에는 짓눌리는 평면적 일상의 속박으로부터 드높은 차원으로의 해방을 꿈꾸는 염원(念願)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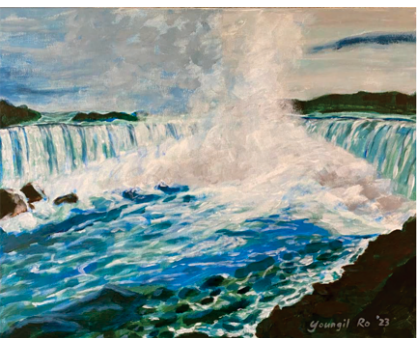
폭포

노영일(68, 시카고)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체감온도가 체온을 웃도는 날들이 여러 날 있었다. 여름이 끝난다는 노동절을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시카고가 이 정도이면 다른 고장들은 얼마나 더울까 상상해 본다. 밖에 나가기가 끔찍하여 집안에 앉아 지난 날 인상에 남았던 시원한 폭포들을 그려 보며 더위를 잊어 본다.

세계 3대 폭포를 들라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남미의 이구아수 폭포를 꼽는다.



미국에 처음 와서 수련의 생활을 할 시절 어렵게 얻은 첫 번째 휴가 때 고물 왜건에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간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였다. 근처에 가자 우선 엄청난 물소리가 우리를 압도했다. 폭포 근처에까지 배를 타고 접근하니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과 물보라는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를 느끼게

했다.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고 감탄했다.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는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몇 년 후 토론토에서 학회가 있어 가다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그 웅장하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는 실개천에 물여울같이 보였다. 인간의 감각이란 이렇게 간사한 것인가?



아프리카 여행 중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광활한 평야에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산불이 난 줄 알았다. 그러나 승무원 안내 양이 저기가 바로 빅토리아 폭포라고 한다. 물보라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을 가르는 잠베지 강에 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이며, 의사, 탐험가였던 데이비트 리빙스턴에 의하여 발견돼 1865년에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졌다.

우리가 간 때는 마침 우기라서 비가 내리고 폭포의 물량이 엄청 늘었다고 했다. 우비와 관초를 둘러쓰고 갔는데도 위에서 내리는 비와 아래서 올라오는 물보라에 온몸이 위아래 없이 뽀뽀 젖었다. 카메라도 젖어 그 날밤 호텔에서 드라이어로 말렸는데 다행히 다음날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잠베지 강가의 식당에서 사슴, 멧돼지, 악어, 타조 고기 등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국적 보메식 야생고기

바비큐를 맛보았다.



이구아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데 그 규모로는 사실상 세계 제일의 폭포라 할 수 있다. 특히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곳은 낙차가 무척 크고 깊다. 엄청난 물량과 굉음, 보이지 않는 바닥이 정말 악마의 목구멍 같다. 가끔 이곳에 뛰어어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인간은 높은 산, 깊은 바다, 큰 폭포 등 엄청난 자연을 대할 때 원초적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압도 당하여 그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 일본의 니꼬(日光)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다. 도꾸가와 사당이 있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정해질 만큼 경관이 좋은 온천관광지인데 이곳에는 계곤노다끼라는 폭포가 있다. 세계 3대 폭포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일본 내에서는 3대 폭포에 속하고 낙차가 100 미터를 넘는다. 이 폭포 옆에 있는 물참나무에는 압두지감(巖頭之感)이란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다.

"머니 먼 하늘과 땅/ 머니 먼 과거와 현재/ 나 오 척의 작은 몸으로써 이 큰 신비를 풀려 하노니/ 호레이쇼의 철학경에서는 아무런 귀의도 찾을 수 없구나./ 만유의 진상은 오직 한가지로 다하여/ 말하노니 불가해(不可解)/ 이 한을 빈민한 끝

에 드디어 죽음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미 바위 위에서 있음에도/ 가슴속에 아무런 불안이 없도다/ 처음으로 깨달은 바는/ 큰 비관은 큰 낙관과 일치하는 것임을."

1903년 젊은 철학도요 시인인 후지무라 미사오는 이 난해한 시 한 편을 나무에 새겨놓고 폭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경찰은 자살 이유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젊은 철학도의 염세주의에 기인한 것인가. 동경대학 철학과를 지망하던 그가 임시 준비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인가. 그 당시 그의 선생이었던 일본 현대 문학의 아버지 나츠메 소세키로부터 꾸중을 듣고 실망하여 죽은 것인가. 좌우간 그 사건 이후 4년간 무려 185명이 이 폭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 자살 명소가 되었다.

그가 죽은 지 80년 후 한 동경대학교수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품 중에 다카야마 로키의 시집 '폭포로 가는 길'의 책장 여백에 빨간 글씨로 쓴 후지무라 미사오의 편지 한 통을 공개했다.

"정사(情事)는 꽃이다. 그러기에 무정한 폭풍우에 흩날려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순애(純愛)는 달이다. 그러기에 달빛처럼 봄가를 없이 영원한 것이다"

마지막 치요는 후지무라 미사오와 동년배인 미인 명문 재원인 처녀였다. 그녀는 후지무라의 어머니에게 다도(茶道)를 배우려 후지무라의 집을 드나들었다. 후지무라는 자살 직전 마지막에게 이 책을 건네주고 폭포로 향한 것이었다. 자기의 순수한 사랑을 영원한 빛에 비유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살한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녀는 이 편지가 쓰여진 책을 90여 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또 무더운 한 여름날이 간다.

글, 그림 노영일 (68)

이번 서울에 있는 동안 우연히 6월 초에 부산에서 있었던 아시아 흉부외과 학회(2023 Annual Meeting of Asian Cardiovascular & Thoracic Surgery)에 초대되어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학회가 내가 개원 초에 조금 도움을 주었던 분당 서울대 병원 흉부외과 교수들과 본원의 흉부외과 팀 주관으로 개최된 대규모 학회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여러 명망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을 비롯하여 약 18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학회이었다. 또 1983년 모교의 고 이영균 교수, 고 서경필 교수가 주관으로 서울 롯데 호텔에서 있었던 같은 학회에서 당시 레지던트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참 흉부외과 의사였던 내가 당시 한국 실정으로는 꽤 드물었던 Bentall Procedure(대동맥 판막, 상행 대동맥, 관상 동맥 삽입)에 대한 논문 및 영화(아마 비디오 시절 전이었을 듯?)를 발표한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학회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서울대에서 유학 온 신참 교수 이영균 교수를 지도했던 미네소타 대학의 Walton Lillehei, George Schimert 교수들 외에 미국의 D. Cooley, 일본의 Juro Wada 등 유명한 외국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부산 학회에서도 한국 심장수술의 역사에 대한 큰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고 미네소타 프로젝트 관련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어, 나에게 많은 추억을 불러왔다.

한국 심장 수술 개척기의 이영균, George Schimert, Walton Lillehei

휴전 후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육시킨 Minnesota Project(1955-62)는 단기 4-5개월 장기 4년 동안 많은 한국 교수(226명)들에게 미네소타 대학에서 선진 과학 교육을 받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미네소타 연수 시 Lillehei 교수(왼쪽 끝) 회진 - 이영균 교수 오른쪽 끝, 머리가 좀 벗겨진 분이 George Schimert(나중에 자문관으로 서울 근무 후에 뉴욕 Buffalo 대학), 앞쪽 분이 Intern Vincent Gott (나중 Hopkins 과장)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로부터 가장 뚜렷한 영향을 받은 분야가 서울 의대의 흉부외과, 특히 심장수술 분야라고 생각된다. 1953년 필라델피아의 John Gibbon이 인공 심폐기를 써서 Atrial Septal Defect의 수술에 성공했으나, 추후 10여 명의 환자의 심장수술을 모두 실패함으로써 그 이상의 수술 시도를 포기할 즈음, 심장수술의 중심은 미국 동부에서 미네소타 대학 외과로 옮겨가게 되었다.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저체온하에서 ASD 같은 간단한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은 성공했으나 수술에 더 시간이 걸리는 조금이라도 복잡한 수술을 위해서는 인공 심폐기의 개선이나 다른 보조 수단이 절실했다. 당시 미네소타 대학 외과팀에서 Wangensteen(외과 과장) 휘하의 교수들 특히 Walton Lillehei, Richard Varco, Dewall 등 특히 대표적 외과 교수 Lillehei는 부모 중 한 사람을 심폐기 대신 연결하여 쓰는 Cross Circulation(사진 참조) 방법 그리고 곧이어 좀 더 개선된 인공 심폐기를 개발(Sigma Motor Pump와 Lillehei-Dewall Bubble oxygenator), 복잡한 심장 수술도 성공하면서 명실공히 심장수술이라는 의학의 신세계에서 메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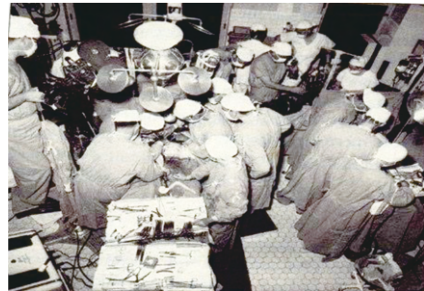
마침 서울 의대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당시 미네소타 대학 외과에는 위에 말한 분들 외에도 나중에 심장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서울의대 심장 수술

조 중 행 (69, 시카고)

Cardiothoracic Surgeon Retired
Former Director, Cardiovascular Ctr., SNU Bundang Hospital

수술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John Lewis, Christiaan Barnard(남아공; 최초 심장이식), Norman Shumway (나중 Stanford 과장 심장 이식의 확립), Dewall(나중 Univ. of Chicago 과장), George Schimert(Univ. of NY at Buffalo 과장), Vincent Gott (Johns Hopkins 외과 과장) 등이 Junior staff 나 Resident, Fellow로 있었다.



Lillehei 교수가 Cross Circulation으로 오른쪽에 엄마(아빠) 혈관에 왼쪽의 아이를 연결 심장수술을 하는 모습

이영균 교수 (1921-1994)

1963



Dr. Yung Kyoon L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OHS by Cardiopulmonary Bypass for ASD (Yung Kyoon L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OHS by Cardiopulmonary Bypass for ASD (Pill Whoon Hong of Severance Hospital)

당시 이영균 교수는 30대 중반의 조교수로 학생 때 해부학 실험 후 심장을 본 적이 없었고(본인 기술), 분과가 되기 전에는 외과에서 신경외과 환자를 주로 치료하셨던 분이다. 당시 학장이던 명주완 교수가 이영균 교수를 차세대 흉부 외과의로 지정(본인의 의사보다는)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한다.

6-25 전쟁 후 1957-1959년 36세의 신참 외과의사로 본인 의사보다는 학장과 외과 윗분들의 뜻에 따라 한국 서울 의대 심장외과 개척의 사명을 띠고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2년간 Lillehei 밑에서 수련 후 귀국하여, GDP 백 불도 안 되는 나라, 전란 후 한국에서 심장수술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실패, 시행착오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다시 수련을 받기 위해 Sweden Karolinska Institute의 Viking Bjork 밑에서 다시 1년 동안 수련을(1965-66) 받고 돌아온 후 조금 나아졌을까?

아마도 이영균 선생의 노력은 맨땅에 머리 박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을 듯-당시 이영균 교수와 나이 서너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미국의 Lillehei 교수와 나는 39통의 편지는 당시 한국 의료 실정과, 한 외과의사, 교수 또 가장으로서의 욕망, 고민, 실망감 등이 편지마다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참고 논문)

내가 서울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던 1969-1970년대의 SNUH(서울대학 병원) 사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한국을 떠난 지 몇 년 후 1977-1978년 국민보훈이 실시되고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80년대 중-후반에야 심장수술은 제 궤도에 올랐고 특히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부인이 재벌의 지원으로 시작한 "심장재단"의 협력으로 한국의 심장 수술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요즘은 의대생들이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아서 야단이지만 이 시절에 서울 의대 출신의 우수한 후배들이 흉부외과를 지원하였고 이들 세대가 지난 몇 년 사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어 앞날이 걱정이다.

나는 지금도 70년 초 이영균 교수에게

수술받고 사망한 한 여아와 그 아버지를 잊지 못한다. 당시 한국에는 미국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했었고, 한 젊은 아빠는 이민 가기 전 VSD 진단을 받은 4-5 세 되는 딸아이가 VSD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몸이 되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였다. 당시 우리의 VSD 수술 실적은 한 50% mortality는 되었을 듯?- 나는 수술 실패로 죽은 여아를 품에 꼭 안고 눈물 흘리던 그 아빠의 처절한 회한의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다. 아마도 이때부터 나의 도미의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었는지?

내가 겪었던 이 교수의 수많은 실패와 한국의 실정은 현재 남아있는 이영균 교수와 Lillehei 사이의 많은 편지들에서 절절히 느껴지며 개업한 동료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가슴 아련해지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소련 문학 이야기가 나온 저녁 자리에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정도 아는 나에게 이영균 교수는 자신이 읽었던 Sholokhov의 대작 "And Quiet Flows the Don"(조용한 돈 강)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교양의 깊이로 젊은 제자의 감수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1994년 esophageal cancer(식도암)로 돌아가시기 몇 주전 나는 미국에서 병실의 선생님에게 전화 --허공에 뜬 몇 마디로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였고-- 나는 은퇴를 한 후 작년에야 겨우 그 유명한 러시아 문학의 걸작 '고요한 돈 강'을 읽을 수 있었다.

Walton Lillehei (1918-1999)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시행되던 시절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이 미네소타 대학 의과대학은 가히 현대 심장수술의 근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기

인공심폐기의 기능이 불완전하던 시절 부모를 심폐기로 대신 쓰는 Cross Circulation 기술, 초기 심폐기의 개선 등 수많은 research 업적 외에 임상적으로 수많은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세계 외과의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분이 C. Walton Lillehei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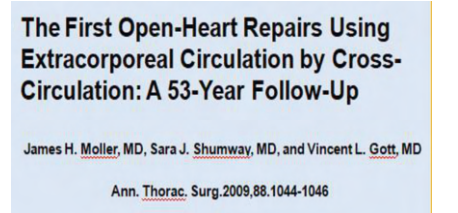
한국의 심장 수술 초기에는 그의 제자 이영균, 또 George Schimert를 통하여 심장 수술의 기술 전파는 물론 Pump, Oxygenator, Heat exchanger 같은 심장수술 필수 기계(아마도 쓰다가 수명이 거의 다해 가는 기계는 아니었는지?)는 물론 Heparin 같은 당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약제, Suture Material(봉합사), 쓰던 수술기구도 미네소타에서 서울로 보낸 온 기록/경험을 볼 때 그의 공헌은 서울대학의 입장에서 Lillehei 교수는 꼭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1970년 이영균 교수께서 서울대에서 첫 번째 Mitral Valve Replacement를 할 때 미네소타에서 보내온(얻어온) 2-0 Silk Suture를 쓴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제2 조수로 수술에 참가하였던 나는 그 낡은 2-0 silk 봉합사가 판막에서 맥없이 끊어지던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다.

몇 년 전 분당 서울대 병원 개원 후 1,000 case 짜의 판막 수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늙은이의 태를 보이고 말았다.

심장 수술의 초기 역사는 Walton Lillehei 교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분은 20세기 외과의 중 임상사사로 최고의 영예인 Lasker Award 수상은 물론 실제로 노벨상 후보로도 몇 번

올랐었으나, 세금 문제, Sybaritic Lifestyle(여자 문제), Paper Work(세금 등 필수 서류 작업)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결국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Walter Mondale 등 미네소타의 많은 유지들이 변론)을 받고, 70년대 초 Cornell 대학 외과 과장 시절 그 자리에서 불명예 해임, 여기에 백내장으로 젊은 나이에 수술을 그만두고 10여 년 실의의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심장외과 관련 많은 특허, idea들은 판막(St Jude), Pacemaker 회사(Medtronic)에서 쓰였고 말년에 한국도 몇 번 방문 제자 이영균 교수의 업적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놀라운 것은 1950년대 초-중반 부모를 인공 심폐기 대신 써서(Cross Circulation) 한 수술들이 VSD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외에도 지금의 잣대(standard)로도 복잡한 심장 수술들, AV Canal, Tetralogy of Fallot 같은 환자가 많이 있었고(Mortality 25% +/-), 80년대 미국 흉부외과학회에서 이들 환자들의 30여 년 장기 추적(follow up) 결과를 들으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외과 의사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과 동시에 거기에 못지않은 스캔들, 화려하면서도 무절제했던, 극적인 생애는 여러 가지 전기, 후학들의 논문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 흉부외과는 매년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젊은 흉부외과 의사에게 Dr. Lillehei Merit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George Schimert (1918-2000)

헝가리계 이민인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외과의로써 수련을 마치고 미네소타 프로젝트 초기에 외과 과장 O. Wangensteen, 흉부외과 주임 Lillehei의 지시에 따라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한국 자문관으로 나가(이영균 교수보다 먼저) 1년 반 동안 서울 대학 병원에서 한국 의학 교육 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료와 자문 역할을 하였다. 서울에 1958년 부부가 Consultant로 파견되어 15개월 머물며 서울 의대의 흉부외과, 심장 수술 분야는 물론 병원 management consulting 등으로 공헌하였고 1959년 인공 심폐기를 쓴 개심수술을 시행하였다(ASD closure: 6시간 후 사망). 심장 수술의 개척기에는 초기 심장 판막을 디자인하였고(Schimert Cutter Valve), 자녀 중에는 서울에 왔을 때 입양한 한국아이가 있었다.



미네소타 대학을 떠나 60년 대에는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에 과장으로 취임 묵묵히 옆스테이트 뉴욕에서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맞먹는 큰 심장 수술 프로그램의 기초를 일구었고, 70년대에 미국에서(1978-1979) 그의 밑에서 내가 다시 수련을 받으며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 최초로 Constrictive Pericarditis(과거에는 모두 Liver Cirrhosis<간경화>로 생각하고 치료하던 병)를 처음으로 진단하고 수술한 경험(Pericardi-ectomy)이 있다고 하였다.

이 분은 내가 본 심장외과(Cardiac Surgeon)중 가장 완벽한 Technician 중의 한 분으로 심장수술에서 수술장 내의 기술적 실수(Mistake)가 결국 환자에게 Mortality와 complication으로 이어지는 그 용납불가한 폐해를 몸으로 가감으로 느끼게 하는 정면 교사로서, 수술장에서 Unhurried Technically Perfect Repair(서둘지 않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수술)를 하도록 가르쳐 (다음면에 계속)



임진전쟁

온 기 철(71, 남가주)

8. 제1차 진주성 전투

김시민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 진주 판관이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 목사 이경과 함께 지리산으로 피신했다. 이경이 병사하자 초유사 김성일의 주선으로 김시민이 목사 대리를 맡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서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했던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자 의병과 관군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초유사라는 직책을 맡아 영남 지방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성으로 돌아온 김시민은 거창군에 있던 일본군을 격파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진주 목사가 되었다. 주민과 관군을 독려하여 방어 준비에 나섰다. 한편 김성일의 도움으로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와 전라도 의병장 최경회가 성으로 들어와 김시민과 합류했다. 경상 우병사 유승인이 패하여 성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김시민은 이를 거절했다. 그는 김시민 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남북으로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조선 수군에게 제해권을 빼앗긴 마당에 호남 지방을 점령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려면 험준한 산맥을 피해서 평지인 남단으로 내려와 진주성을 통과해야만 했다. 양군의 사활이 걸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었다.

10월 6일 일본군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총공격을 개시했다. 해자를 메우고 동문 쪽 두 곳을 뚫으려고 시도했으나 군관민이 총 단결하여 나흘 만에 일본군은 패퇴했다. 10월 10일 김시민은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도요토미는 패전 소식에 대노했고 차후에 다시 공격할 것을 명했다. 이때 양심을 먹은 그는 정유재란 때 다시 진주성을 공격하여 성을 초토화 시킨다.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과 심유경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은 명나라에서 원병이 가는 동안 일본군이 북상하여 의주를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심유경을 먼저 평양에 보내서 고니시와 휴전회담을 하게 했다. 1592년 10월 초에 심유경은 위험을 무릅쓰고 단신 평양성으로 가서 고니시와 회담을 했다. 고니시는 보급 문제로 전쟁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서 그는 반가운 손님이었다. 5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 선조 배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영하의 몽골족이 일으킨 보바이의 난을 평정 한 후 같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의주에 도착했다. 1592년 12월 25일 의주 용만관에서 이여송은 선조를 배알했다. 이여송은 교만한 태도로 “신하의 나라를 구하러 왔다”라고 선언했다. 선조는 그가 무척 반가웠다. 배선 발로 마중했다. 선조는 위장용 환도를 하사했다. 왕이 이여송에게 명과 조선의 군사를 총지휘할 권한을 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군사를 조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조선 의병의 활약

일본에서는 다이묘(번주)들끼리 싸움에서 패전하면 그 번주의 백성들은 모두 이긴 번주에게 복종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성을 점령해도 성안의 백성들이 의병이 되어 다시 공격해 왔다. 뜻밖의 일이었다.

훈원원 부봉사 권응수와 정대임은 현지에서 의병을 모아 영천을 수복했다. 9월 20일 경상 좌병사 박진은 권응수를 도와주고 군사 1만 명을 동원하여 경주성을 탈환했다. 비격진천포라는 대포가 주효했다. 이 포의 대포알은 시한폭탄이었다. 대포알이 경주 성안에 떨어지면 바로 폭발하지 않았다. 일본 병사들은 이리저리 굴러 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폭발하여 굉음을 내면서 파편이 날아왔다.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대포였다.

흥의장군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전 재산을 털어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게릴라 전을 하다가 관군과 합세하여 정규전에도 참여했다. 의령, 삼가, 합천, 영산에 있는 왜군을 섬멸했다. 전라도에는 고경명과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켰다. 충청도에서는 조현이 활약했다. 경상도 의병은 호남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님들도 의병에 참여했는데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당 유정이 유명하다.

조정에서는 의병의 역모를 우려했다.

임진왜란 중에 관군은 지극히 취약했다. 반면에 의병이 곳곳에서 승전보를 알려 왔다. 조정 대신들과 왕은 의병대장들이 혹시 역모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들의 동태를 살폈다. 전라도 광주 출신 의병대장 김덕령은 유학자이면서 천하장사였다. 그는 일본군과 싸우는 쪽쪽 승리했다.

1596년에 임진왜란이 일단락 끝나고 전투가 소강상태였을 무렵 서얼 출신 이몽학이 난을 일으켰다. 조정은 김덕령, 곽재우, 홍계남, 최담령을 이 사건에 연루시켜 체포했다. 김덕령은 국문 중에 두 다리가 부러져 사망했다. 최담령은 사형당했다. 곽재우와 홍계남은 석방되었다. 그 후 곽재우는 항상 감시를 당했다. 그는 전쟁 후에 산속에 들어가 도가에 심취했다.

임란 후에 거의 모든 공은 피난 따라갔던 문신들이 차지했다. 의병장들의 공은 거의 무시했다. 해방 후에 독립운동가들과 비슷한 신세였다.

9. 평양성 탈환, 해주대첩, 한양 수복

명나라에서 온 인사들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은 유성룡은 이여송을 극진히 모셨다. 변변한 군대가 없었던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나라 군대가 대신 싸워주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이여송에게 평양성의 지리와 일본군의 동향을 소상히 알려 주었다.

명나라 군대 3만 명이 우수한 대포로 평양성을 총공격했다. 불랑기포, 멀로포, 호준포 등 당시에 가장 발달된 화력이었다. 강행군으로 피로에 지친 일본군은 명군에게 압도되었다. 일본군 1200명의 목을 베었고 말 2900필을 노획했다. 조선 백성 만명이 불에 타서 또는 물에 빠져 죽었다. 명군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이여송은 자신의 병력 손실을 줄이려고 고니시에게 퇴로를 열어 주었다.

고니시는 평양을 이여송에게 내주고 퇴각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북경을 향해서 5번 절을 했다. 명군 작전참모에게 2번 절을 했다. 이여송은 조선의 영웅

이었다. 이여송에게 사당을 지어 주었다. 산사람에게 세워준 사당이였다. 생사당이라고 한다.

유성룡은 고니시가 퇴각하는 길목에 이일을 시켜 북병을 배치했다. 이여송은 이를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니시는 무사히 퇴각했다. 평양성이 함락된 후로는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조정은 명군이 좀더 적극적으로 싸워주기를 바랐다.

왕조 실록에는 일본군 수급의 반이 조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명 원군은 남군과 북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여송은 북군이였다. 남군 측에서 북군이 조선 백성들의 목을 베어 머리를 깎아서 일본 사람처럼 꾸며서 수급의 숫자를 부풀렸다고 주장하여 조선 측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여송을 영웅시 하는 조선에서 그에게 흠이 갈수 있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리가 없었다.

이여송 벽제전투에서 패하다.

일본군이 퇴각한 직후 이여송은 기마병 5천을 이끌고 고니시를 추격했다. 포대를 동반하지 않은 명군은 조총을 가진 일본군에 비해 불리했다. 또한 일본군은 오랜 전쟁 경험으로 백병전에 능숙했다. 고니시는 5만 명을 인솔하여 한양으로 가는 중이었다.

벽제관은 경기도 고양시 부근에 있는 역관이였다. 북경을 오가는 사신이 이곳에서 묵었다. 고니시는 이곳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이여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병의 습격을 받은 이여송은 참패했다. 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평양성으로 돌아왔다.

이여송 전투 회피, 협상 추구

일본군에게 혼쭐이 난 이여송은 싸우려 들지 않았다. 조급해진 조선 신하들이 이여송에게 싸워달라고 애걸했다. 순변사 이빈이 명장수에게 싸워달라고 조르자 발길로 찼다. 유성룡이 이여송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싸워달라고 애걸하자, 이여송은 조선 신하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군량과 말에 먹일 풀을 조달하지 못한 죄를 따졌다. 유성룡은 눈물을 머금고 물러 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여송은 유성룡에게 사과했다.

일본과 명은 협상 후 종전을 원했다.

1593-1594년에 조선에 기근이 와서 70만 명 가량이 굶어 죽었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졌다. 타향에 와 있는 명군과 일본군에게는 치명타였다. 명군은 군량미 대신 은을 가져와서 조선에서 직접 식량을 구입하려고 했다.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주신 분이이다.

레지던트 마친 후 미국 학회에서 두 번 아시아 학회에서 한 번, 다시 만나 보였고, 그리고 2000년 그의 장례식에 갔었다.

Avid Sailor(요트 모는 기술 탁월)로 그가 소유했던 78feet 짜리 VIXEN 2는 미국의 High Rolling Sailor(고급 요트 소유자)들이 군침 흘리던 Sail Boat(돛단 요트)로 수술 중에는 가끔 이 배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1983년 도미 후 처음 귀국했던 해 아시아 흥부외과 학회에서, 내가 “Bentall Procedure”(벤탈 수술)에 대한 영화(비디오)-논문 발표를 한자리에 Schimert, Lillehei 등이 있었는데,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 두었으면 손자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1983년 도미 후 처음 귀국했던 해 아시아 흥부외과 학회에서, 내가 “Bentall Procedure”(벤탈 수술)에 대한 영화(비디오)-논문 발표를 한자리에 Schimert, Lillehei 등이 있었는데,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 두었으면 손자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참고

- 1) Analysis of 39 letters concerned with the late Professor Lee YK & Dr. Lillehei (Apr. 1958-Dec.1961) WG Kim., Korean J Thorac. & CV Surg. 2009;42:543
- 2) A Cardiac Surgeon from USA who had worked in Korea a Half Century Ago -- Dr. George Schimert- WG Kim., Korean J Thor. & CV Surg., 2008;41:189
- 3) King of Hearts, the true Story of a Maverick; G Wayne Miller, 2000

Excerpts from the letters

- 1) from Lee YK to Wangenstein (1959); “I am sure that with your benevolent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you would grant help to me,so that this new field of surgery can be started in a far away country, Korea for the benefit of my country people, my school, and my sincere desire, sir”
--asking the chief to extend the stay in Minn. For another year --
- 2) from Lee YK to Lillehei (1961); “The dean and two professors provided me some money to buy blood for the pump(HL machine), enough for three cases -- Even by myself I doubt the wisdom to tackle with such highly risky cases from the beginning. It is simply impossible to get open heart cases, none the less choosing out of stocks. -- 심폐기에 넣을 피를 미리 돈을 내고 사야했던 그 시절 --
- 3) from Lee YK to Lillehei (1961 Ju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pproval of the oxygenator parts ---I am running pump three times a week in the dog lab---”
- 4) from Lillehei to Lee YK(1961 July): “Your April 11 letter asked us to supply you,



1959년 서울 시절: George Schimert 가운데 -그 옆이 초대 흥부외과 선구자 고 이찬범 교수, 앞줄 맨 왼쪽이 제국대 출신 외과의 이영린 교수. 우리 학생 때는 개업의로 서울대 병원의 모든 conference에 참석하시던 학우파이시다. 다른 분을 recognized 할 수 있으면 역사적 자료가 될 듯.

no charge, a quantity of our Heparin solution for your use in the University. We will be pleased to cooperate by supply 4529, a 72X 500ml bottles---

- heparin도 구하기 힘든 시절--
- 5) from Lillehei to Lee YK (1963, May); “I do hope, however, that you do not become discouraged because many times victory comes in the darkest hours.--- the ball valves(인조판막) are rather expensive coming to \$225.00 each. If the funds do become available, I would be certainly happy to advise you as the minimum order”
- 6) from Lee YK to Lillehei (1965); “Even though some of my college alumni are making lots of money even by US standard by practicing, I have to hang on --- my desire is at least some steady results have to be established in open heart surgery before I quit for a better personal living for me and my family--- Your new article reprints have been my inspiration all the time.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하신 듯”

미대륙이 “발견” 된 날에 생각해 보는 알래스카와 북한

이희백 (61, 시애틀)

1492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 한 지 531년이 지났다. 이날을 Columbus Day라고 기념했었는데 이제는 “원주민의 날”이라 부르게 되었다.

만일 미대륙이 오늘에 비로소 ‘발견’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알래스카 사람들은 남쪽 48주를 lower 48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여긴다.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광대한 땅에 삶을 자랑한다. Lower 48에서 제일 크다는 텍사스

의 거의 두 배 반의 면적에 살고 있고 인구는 텍사스의 40분의 1 밖에 안된다. 이것은 2020년 통계이고 내가 갔던 1972년에는 현재 인구의 반도 안 됐다. 알래스카를 보면 1492년 당시의 lower 48이 어려웠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후예들이 알래스카라고 가만히 돌리가 없다.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는 Gold Rush가 일어났었는데 1974년 알래스카에는 Black Gold Rush가 일어났다. 그러자 우리 집에서 160 마일 떨어진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보이던 알래스카산맥의 눈은 흐리게 되고 집에서 20 마일 떨어진 길에서 보이던 빙하는 몇 년 사이에 다 녹아 버려 사라졌다. 몇 년 후에 정유공장이 들어서자 공기는 더 탁해지고 모기가 사라졌다.

지금 지구상에서 옛 알래스카 같은 곳이 한군데 있다. 바로 우리의 DMZ 다. 가끔 이곳에서 희귀한 새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들리고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자

연공원으로 보존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DMZ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북한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하면 어떨까.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한반도의 알래스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이북이 말하는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살자는 뜻이라면 북한도 옛날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총, 무쇠 없이 사는 세상, 수렵과 야생식물만을 채취해 먹고

사는 세상. 그러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농업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세상이다. 평양에 삼강형 호텔을 짓고 원산을 관광지로 만들고서는 ‘주체’를 지키기 힘들다. 더구나 원자폭탄과 미사일을 자기 혼자 힘으로만 만들 수 있다.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쥐야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수렵과 자연 식물 채취로 살아가지 않는 한 ‘주체’ 사상은 지킬 수 없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자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자기 조상들의 생활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듯이 북한도 옛날 생활에 머무를 수 없다. 하다 못해 금강산에도 오지 말아라 개성공단에서 돈 벌 필요도 없더니 어쩌자는 것인가. 영원히 깜깜한 밤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주체사상은 주체없는 사상이 되고 말았으니 주체사상을 버리고 공존 사상으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콜럼버스 날, 아니 원주민 날을 맞이해 생각해 본다. 2023년 10월 9일

〈전면에서 계속〉 무거운 식량을 북경에서 평양까지 운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제해권을 조선에게 빼앗기고 호남 지방을 점령하지 못한 상황에 다 기근까지 겹치니 진퇴양난이었다.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는 병사가 전병력의 반이었다.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집에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명군은 일본군이 명을 침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더구나 국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고 귀국하기를 원했다. 양국은 협상을 선호했다.

권율 장군과 행주 대첩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첩 비

관주목사 권율은 순찰사가 되어 1592년 7월 8일 이치 전투에서 승리하고 12월에 수원 방어에 성공한 후 한양 공격 계획을 세웠다. 수원 광교산, 양천, 통진, 파주와 양주에 병력을 배치했다. 명군과 연합하여 한양 탈환 작전을 계획했었으나 명군이 전투를 회피하여 조선군 단독으로 한양 수복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권율은 행주 덕양산에 군사 2300명을 동원하여 진을 쳤다. 남쪽은 한강변이었고 장릉천 쪽은 절벽이었다. 토성을 북구하고 북쪽에는 목책을 설치하여 방어했다. 퇴각할 수가 없는 일종의 배수진이었다. 일본군 3만 명이 무려 7 차례나 공격했으나 관군과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조선군은 화차, 수차석포, 각궁으로 일본군을 공격했다. 지자포와 비격진천뢰의 위력에 일본군은 혼비백산했다. 성안에 일본군이 들어올 때마다 권율은 직접 나서서 싸웠다. 군과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장소였다. 그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은 주효했다. 병사들과 백성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싸웠다.

조선군이 명군의 도움 없이 일본군을 대파하자 이여송은 권율과 조선군의 전투 능력을 인정했다.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 대첩은 조명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전투였다. 권율은 전군을 지휘하는 도원수가 되었다.

한양 수복

한양에 주둔하고 있는 고니시 군은 군량 부족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나마 죽이었다. 병력은 이미 반 토막 나 있었다. 고니시는 도요토미에게 철수한다고 보고하고 한양에서 철수했다. 1593년 4월 18일이었다. 겨우 일 년 한양을 차지했었다. 조선 군대는 추격하여 섬멸시키고자 했으나 이여송은 조선군에게 공격

금지령을 내렸다. 고니시는 명나라에서 보낸 협상 대표격인 심유경과 조선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데리고 철수했다. 이틀 후 권율은 한양에 무혈입성했다. 12개월 만이었다.

10. 2차 진주성 전투와 강화조약

평양에서 고니시, 함경도에서 가토의 군대가 후퇴하여 한양에 집결했다. 그리고 북진해온 일본군이 전병력이었다. 1593년 2월에 권율이 지키고 있는 행주산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순신이 남해와 서해를 장악하고 있어서 본국으로부터의 보급이 차단되었다. 거기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왔고 전염병이 돌았다. 군량미가 부족하여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한편 명나라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명군은 군량미 대신 은을 가지고 와서 군량미를 현지 조달하려 했으나 기근으로 군량미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일본군이 퇴각하고 있는 마당에 자국의 병력을 손실시켜가며 일본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측은 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용산에서 심유경과 고니시가 만났다. 심유경은 고니시에게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할 것과 인질로 잡힌 두 왕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고 고니시는 심유경에게 명군이 요동으로 철수할 것과 도요토미의 일본 왕 책봉 등을 위해서 일본에 강화사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일본군은 1593년 4월 18일 인질로 잡은 두 왕자와 함께 울산과 거제로 총퇴각했다. 본국으로부터의 보급이 용이한 지역이었다. 조선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명의 만류로 어찌할 수 없었다. 더구나 명과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조선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도요토미는 일차 진주성 공략 실패에 분개하고 있었다. 그는 고니시에게 전병력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함락하고 전라도를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군은 10만 대군을 동원했다. 진주성 안에는 군사 6천 명과 주민 그리고 피난민 5만 명이 있었다.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성을 방어하자는 파와 성을 비우고 일단 일본군에게 내 주자는 파로 갈라졌다. 전투가 벌어지기 얼마 전에 초유사 김성일이 사망했다. 김성일은 적정을 살피려고 일본에 다녀와서 도요토미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본심이 강직하고 하는 일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당파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볼 때 그가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이라고 했어도 전쟁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생각한다. 선조는 그를 경상도 지방 초유사로 임명했다. 그는 관군과 의병 사이를 조율하여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진주성 전투에 대한 단결된 결론을 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라도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은 진주성이 함락되면 전라도가 위험

해지기 때문에 진주성을 방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충청 병사 황진, 경상 우병사 최경희와 많은 의병장이 김천일과 같이 성 사수에 동의했다. 그러나 도원수 권율, 의병장곽재우는 성을 비우고 후퇴할 것을 주장했다. 성 방위에 실패하면 병력과 백성들의 목숨만 헛되이 희생되기 때문이었다.

심유경은 황급히 고니시에게 공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자기는 도요토미가 원하는 대로 성만 함락하면 그뿐이니 성을 비우고 후퇴하라고 답했다.

1593년 6월 21일 일본군은 총공격을 개시했다. 1차 전투 때는 후방에 남아 있는 실전에 서툰 병력이었다.

이번에는 전방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정예병이었다. 일차 때는 성 뒤쪽에 있는 해자를 메우지 않고 전면에서만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해자를 메우고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철갑으로 지붕을 씌운 바퀴 달린 귀갑차를 만들어 성벽 가까이 접근하여 폭파시켜 성벽을 무너뜨렸다.

1차에 비해서 잘 준비된 공격이었다. 일본군은 9일 동안 무려 200 차례 공격을 가해 왔다. 그동안 성안의 장병과 백성들은 원군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구원병은 오지 않았다. 결국 일본군은 성안으로 들어와 군관민 6만 명을 도륙했다. 산 생명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충청 병사 황진은 적탄에 맞아 전사했고 의병장 김천일과 아들 김상건, 경상 우병사 최경희, 의병장 고종후는 남강 물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진주 목사 서예원은 전사했다. 6월 29일 진주성은 일본군에게 함락 되었다. 진주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남원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퇴각했다. 전면적인 전라도 공략은 하지 않았다. 도원수 권율의 말을 듣고 성을 비워주었으면 6만 명의 생명이 온전했을 지도 모르지만 전라도 공략을 중단한 이유가 진주성 전투에서 입은 피해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일본군의 사상자는 13,000명으로 추산했다. 축석루에서 승전 축하연이 열렸다. 수청을 들던 논개는 사토의 부장 게아무로 루쿠스케를 안고 남강으로 투신했다.

전라도 좌의병 지휘부가 전멸하자 전국 최강의 전라도 의병이 와해되었다. 초유사 김성일의 종사 이로는 진주대첩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기록한 용사일지를 남겼다.

일본군은 진주성을 함락했지만 전라도 공세에 실패한 후 울산과 부산지역 왜성으로 후퇴하여 전쟁은 사실상 휴전 국면에 들어갔다. 일찍이 싸우기를 포기한 명나라도 심유경을 앞세워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시도했다. 일본 측 협상 상대였던 고니시 유키나가 또한 가망 없는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귀국하려 했다.

명나라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고 인질로 잡은 두 왕자를 조선에 돌려보내고 도요토미가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도요토미는 명나라에게 황실의 공주를 자신의 첩으로 보

내고 조선의 왕자와 대신 12명을 일본의 볼모로 보내고 일본이 명나라와 통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조선 4도, 한양을 제외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일본에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당사자인 심유경과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요구를 명나라와 조선이 받아 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의기가 상통한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와는 항복문서를 위조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니시에게 보낸 종전 문서에는 그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니시와 심유경은 마치 도요토미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일본 왕으로 책봉되기를 원하고 일본이 명의 조공국이 될 것을 바라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고니시는 위조된 문서를 부하 나이토 조안에게 주어 명나라로 보냈다. 명나라 조정은 한동안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하다가 조공(통상)은 거절하고 책봉은 해주기로 결정했다. 명나라는 양방형과 이종성을 책봉사로 임명하여 부산에 도착했다. 이들은 명나라 황제가 보낸 칙서를 가지고 도요토미를 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 했다.

1596년 일본군과 명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각각 일본과 명으로 철군했다. 2차 진주성 전투가 끝나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지 3년 만이었다. 일본은 인질로 잡았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명나라 사신 정사 이종성이 도요토미가 명나라 사신을 잡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도주해 버렸다. 다행히 그가 황제의 칙서와 인장을 두고 가서 부사 양방형이 정사가 되고 같이 갔던 심유경이 부사가 되었다. 조선에서는 황신을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도요토미는 조선이 인질로 왕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황신을 만나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종신들이 입회한 자리에 양방형, 심유경과 승려 사이쇼 조타이가 읍소했다. 도요토미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사이쇼 조타이는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도요토미에게 읽어주는 임무를 맡았다. 칙서에는 책봉 이외에 도요토미가 요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심유경과 승려 사이쇼는 칙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읽지 않고 도요토미가 요구한 조건을 열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이쇼는 있는 그대로 읽어 버렸다.

도요토미는 대노하여 재침을 명령했다.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난 연유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문서에 도요토미가 속았다는 정유재란 발발의 자초지종이다. 그러나 나무위키에 의하면 도요토미가 책봉을 받아들였으나 조선이 왕자를 볼모로 보내지 않아서 대노하여 재침했다고 한다. 종래의 가짜 문서설은 임진전쟁 후 국수주의자들이 조작한 역사라고 한다.

돈 돈 돈

이원택 (71, 남가주)



1. 돈발

최근 중국에서는 잘 나가는 공산당 간부에게 잘나가는 여배우가 수청드는 화대로 10년에 걸쳐 18억 원(한국 돈으로 환산)씩 도합 180억 원을 대납했다는 잘나가는 기업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180억 원이면 그다지 잘나가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이 십팔만 번 정도 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것은 그다지 잘나가지 못하는 중국 여성의 1800년간의 봉급에 해당한다.

십수 년 전에 중국의 한 중소도시에 갔을 때 그곳의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마치 군대에서 배식을 받을 때처럼 접시를 들고 일렬로 주방을 지나가면 종업원들이 큰 가마솥에서 국수 한 사리 국물 한 국자 그리고 돼지고기 서너 점을 집어주었다. 그것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였다. 180억 원어치는 인구 9천만 명이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성육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식육으로 예를 들어보았으니 이만하면 이제 돈의 가치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가.

이와 같이 돈이면 처녀 불알도 살 수 있고, 귀신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악착같은 돈벌레가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돈과 목숨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돈이란 다른 종이나 마찬가지로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리거나 혹은 밀싹개로 쓸 수도 있지만 돈에 침을 뱉는 사람이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 편리, 편안, 만족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돈은 인간이 편리하게 잘 살자고 만들어낸 물건이다. 음식이나 문명의 이기나 지식도 돈이 없으면 획득할 수가 없고 사랑도 자선도 돈이 없으면 베풀 수가 없다. 어떤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어가는 환자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현대인은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돈의 본질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몇 번 재미를 본 공산당 간부는 수청이 되고 여배우는 망신을 당하고 기업가는 감옥에 갔다. 수년 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John Edward, 전 상원 의원도 불륜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자금을 유흥비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즉 돈이란 것은 어떻게 버느냐 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덕도 되고 악덕도 된다. 이런 것을 소위 필요악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돈을 습득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복권에 Mega Million JackPot(수백만 뽕)이 터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지땀을 흘리거나 요리조리 짱구를 굴려야 한다.

돈에도 냄새가 있어서 유태인은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지옥에라도 따라가고 마피아들은 악마의 돈도 상관치 않는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에서부터 수십억을 사기 친 EnRon의 CEO에다가 용병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가다피는 물론 인류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땅따먹기 내지는 돈 따먹기인 것이다.

2. 돈줄

나는 부자가 죽고 나서 재산 싸움 하지 않은 집안을 본 적이 없고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말년에 유리 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다. 즉 돈에는 피와 눈물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썩어지고 영악해지고 각박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젊어서는 까짓것! 없으면 또 벌면 되지! 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수전노가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은 세 살짜리도 돈을 주면 좋아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릴수록 효자라고 한다.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지만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돈이 있으면 안심이다. 배가 차면 인간은 포만감을 느끼지만 100원을 벌면 1000원을 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상에서 돈을 취미로 버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동안 세과를 타고 살다 보니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예측 불허한 미래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다. 돈이 불안의 안정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란 생명줄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다. 사람 위에 돈 있고, 돈 나고 사람 낳다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돈은 벌기도 쉽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므로 어빙하게 있다간 대낮에 코를 베이기도 한다.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앞길에서 롤렉스 금따지를 200불에 샀다가 이를 만에 시계가 서버린 적도 있고 과리의 빼갈 거리에서 성인용 영화를 보러 갔다가 1000불을 빼앗긴 적도 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맛보다는 쓰는 맛이 더 짜릿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부자가 삼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돈을 쓰는 재미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다.

술한 전란을 겪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화교들은 많은 현금을 침대 밑에 감춰두었다. 그래서 호떡집에 불이 나면 야단이 나는 것이다. 평생을 행상으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온 노파는 20억 원을 남겨놓고 갔다.

돈을 재미로 모으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다. 내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서울 명동에 굶짜라기 땅 수천억 원을 가진 알부자이지만 수년 전 미국 정부에서 주는 사회보장비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이민을 왔다. 한인타운의 정부 보조 노인 아파트에 살면서 점심은 2불 99전 짜리 자장면만 찾다니면서 먹는다.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 보국훈장 자린고비 상이라도 주어야 마땅할 것이 다.

돈은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한동안 잘나가던 일본의 경기가 폭삭 가라앉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지독한 저축 정신 때문이었다. 돈의 남발도 문제가 된다. 현재 미국 경제가 허덕이는 것은 그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여과라고 한다. 어떤 이는 세계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서 세상 곳곳에서 달러화가 똥값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싹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돈으로 장작을 사는 것보다 그냥 돈을 때는 편이 더 낫다는 말도 있었다.

3. 돈독

종이쪽지 한 장의 위력은 정말로 신기하기가 그지없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100불을 내면 100불짜리 물건을 주고 50불짜리 물건을 사면 20불짜리 두 장 10불짜리 한 장을 거슬러 준다. 또 주유소에서 100불어치 휘발유를 넣으면 LA

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다. 비행 깃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1400불만 내면 미국에서 서울까지 어김없이 데려다 준다. 요술 방망이가 아닐 수 없다.

돈의 사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개인은 물론 회사 간혹은 국가 간에도 신용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는 씹씹이가 해뒀던 그리스를 유로화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개성상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빌려주었다. 개성상인들은 할아버지가 진 빚도 손자가 반드시 갚는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수표나 어음도 마찬가지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불보증, 담보, 선불, 후불, 분할지급, 신용장 등등 통화의 종류가 다양하며 돈을 빌리기도 예치하기도 하면서 이자까지 계산하게 된다. 돈은 들고 도는 것이고 돈의 근본은 사회적 협약으로,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지폐에는 In God We Trust(하느님 속에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게 했겠는가.

은행에서 만 불을 빌린 사람은 거지 취급을 당하지만 천만 불을 빌린 사람은 왕대접을 받는다. 한국의 모 재벌은 적수공권으로 은행은 많고 돈은 무진장이라는 신조 하나로 아주 잘나가다가 줄을 잘못 서서 감옥까지 갔는데 남의 돈 우습게 알다가 패가망신한 좋은 예이다. 돈이란 들고 도는 것이라지만 세상에 눈먼 돈은 없는 법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야 할 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애간장을 태우거나 떼어먹힌 경험이 있고 장사꾼이나 사업가들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으리라. 돈도 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신뢰감 내지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지만 돈을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보면 평생 구멍가게에서 번 돈을 입담이 좋은 투자가한테 빌려주었다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떼어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자가라는 인간은 자기는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얼굴이 두껍거나 심장에 털이 난 사람들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노예로 삼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파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모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나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어떤 법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법을 부리는 것 같아서 자본주의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4. 돈길

돈이란 원래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애를 쓰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 노동은 신성하다.

그러나 돈은 신성하지 않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자 받는 것을 치사하게 생각했고 불교에서는 돈을 번뇌의 소굴이라 했다. 기독교에서는 돈을 죄악시켰으며 유교에서는 돈을 더럽다고 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 집승을 아귀(餓鬼)라고 부르는데 음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포만할 수 있으나 쇠붙이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처럼 무한한 돈을 먹고 사는 전귀(錢鬼)야말로 결코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짐승인 것이다.

그리고 그 원흉은 인간의 욕심이다. 노동은 유한하지만 욕심은 무한하다. 물질은 유한하나 정신은 무한하다. 따라서 돈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돈을 물질로 착각하는 것은 정신우월론자들의 세뇌 작용 때문이다.

나도 그동안 돈, 돈, 돈하면서 돈을 좇아다녔으나 어디를 가나 돈, 돈, 돈에 치여서 돈, 돈, 돈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자승자박이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나는 자본주의 다음에는 노동주의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돈과 기계문명에 염증이 난 인간들이 다음으로 바랄 것은 신성한 육체노동이라고 본다. 인간은 정신적인 희열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에 더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일이다. 돈과 관계없이 땅을 파거나 짐승을 쫓아다니거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거나 구태여 돈 들고 운동할 필요도 없다.

현대인들은 자동차 타고 10리나 떨어진 체육관에 가서 돈 내고 뛰기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자동차 타고 집에 돌아온다. 그곳까지 그냥 뛰어갔다 오면 되는 것을 무엇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돈 지랄'이다. 최근에 극단 LA에서 공연한 '돈 돈 돈'이란 코미디를 관람했다. 돈이 있어 보이면 딸의 애인까지 빼앗으려 하고 돈의 향방에 따라 아비에게 붙었다 자식에게 붙었다 하는 여심이 있었다. 돈 장난이다.

돈이 많은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없으면 아쉽지만 있으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갑자기 쉽게 번 돈은 오래가는 법이 없고 그 여과로 폐인이 되거나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로드니 킹에서 보듯이 제명에 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돈 벼락이다.

돈은 마치 마약과 같다.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쉽지 않고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30평짜리 아파트도 감지덕지하다가 자꾸 40평, 50평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100평짜리도 성에 차지 않는다. 돈 중독이다.

생각할수록 돈이란 고약한 물건이다. 과연 돈이 필요 없는 무자본주의 세상이 오기는 올 것인가?

농담 골목

백만장자 여자:

사람들이 제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그이가 백만장자라서 라고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이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 라구요.

기자: 그럼 남편분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여자: 억만장자요.

의사와 변호사

커피 파티에서 의사와 변호사가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의사에게 무료자문을 받으려는사람들 때문에 대화는 계속 끊겼다. 1시간 가량 이런 일이 반복되자 뿔이 난 의사가 변호사에게 토로했다. 의사: 이런 모임에만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문을 요구하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간단합니다. 자문해 주시고 청구서를 보내세요.

다음날 의사의 우편함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발견했다.

귀걸이를 한 이유

한 남자가 일하는 도중에 회사 동료가 귀걸이를 한 것을 눈치챈다. 그 동료는 보수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귀걸이를 한 이유가 궁금했다. "자네가 귀걸이에 관심이 있는지 난 미처 몰랐네" 그러자 귀걸이를 한 동료는 "별일 아닌거 갖고 괜한 말 만들지 말게." 그래도 그 남자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자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 귀걸이를 한거야?" 그러자 멧직한 표정을 지으며 동료가 하는 말, "아내가 내 차에서 이 귀걸이를 발견한 날부터 어쩔 수 없이 한거야." (이덕승)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칙개정에 관한 안내

1972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칙이 시행된 후 50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By-Laws Committee에서 보내온 새로 정리된 회칙 개정안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이사회/대의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시행될 것이며 아울러 곧 발간될 주소록에도 올려질 것입니다. 개정안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이사회 임원이나 각 지역 대의원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urrent: ARTICLE II PLACE AND ACTIVITY

1.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Association shall be located in the City of New York, the State of New York.

2. The Association may maintain and establish from time to time other places within or without the State of New York at which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may be carried on or at which the meetings of members may be held, at such location(s) as may be appointed by the House of Delegates.

Amendment: ARTICLE II PLACE AND ACTIVITY

1.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Association shall be located in the City of New York, the State of New York.

2. The Association may maintain and establish from time to time other places within or without the State of New York at which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may be carried on or at which the meetings of members may be held, at such location(s) as may be appointed by the House of Delegates, **or the officers of the Association.**

2. Current: ARTICLE IV CLASSES OF MEMBERSHIP

3. The eligibility of admission as Associate member shall be based up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Matriculation at the University, including the premedical, graduation from other medical schools and holding the M.D. degree.

Amendment: ARTICLE IV CLASSES OF MEMBERSHIP

3. The eligibility of admission as Associate member shall be based up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Matriculation at the University, including the premedical, and graduation from other medical schools and holding the M.D. **or equivalent degree.**

3. Current: ARTICLE IV CLASSES OF MEMBERSHIP

No class of affiliated membership defined.

Amendment: ARTICLE IV CLASSES OF MEMBERSHIP

5. The eligibility for admission as affiliated member shall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a) **Descendant of the regular or associate members.**
- b) **Holding the M.D. or equivalent degree.**
- c) **Resides in North America.**

4. Current: ARTICLE VI MEMBERSHIP DUES

1. The dues of Regular or Associate members shall be payable annually to the Treasurer of the Association. The amount of the annual du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House of Delegates.

Amendment: ARTICLE VI MEMBERSHIP DUES

1. The dues of Regular or Associate members shall be payable annually to the Treasurer of the Association. The amount of the annual du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House of Delegates. **The honorary and affiliated members shall be exempted.**

5. Current: Article X Committees

1. There shall be eleven Standing Committees, designated respectively as the Finance Committee, the Scholarship Committee, the Fund-Raising Committee, the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the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the Green Project Committee, the Publication Committee, the By-laws Committee, the Advisory Committee, the Nominating Committee, the Office Management Committee. The Chairperson of each Standing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House of Delegates at the Annual Meeting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incoming President. The Chairperson shall submit a list of committee members to the Secretary within one month of his/her appointment.

Amendment: Article X Committees

1. There shall be **thirteen** Standing Committees, designated respectively as the Finance Committee, the Scholarship Committee, the Fund-Raising Committee, the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the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the Green Project Committee, the Publication Committee, the By-laws Committee, the Advisory Committee, the Nominating Committee, the Office Management Committee, **the Charity Committee and the Silver Project Committee.** The Chairperson of each Standing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House of Delegates at the Annual Meeting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incoming President. The Chairperson shall submit a list of committee members to the Secretary within one month of his/her appointment.

The replacement of vacant committee chairs can be done with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later approved by the House of Delegates.

6. Current: Article X Committees

3. FUND-RAISING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Fund-Raising Committee to organize, coordinate and implement various fund-raising activities to the Association, pursuant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mmittee shall neither incur, in the process use any fund-raising any more expenditure than is allocated to specific projects by the Board of Directors, nor use any fund-raising method of agencies not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ll income generated by the Committee activities shall be under sole and exclusive control of the Board of Directors.

Amendment: Article X Committees

3. FUND-RAISING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Fund-Raising

Committee to organize, coordinate and implement **various research, educational and charitable** fund-raising activities to the Association, pursuant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Delete the rest of the paragraph.**

7. Current: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

5.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c) no defi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Amendment: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

5.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c) The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organizing, coordinating, and executing a range of fundraising activities to support its initiatives. To fulfill this objective, the Committee shall possess the authority to choose, designate, and oversee the allocation of funds, and establish named funding awards to meet the intention of recognizing the generosity of donors who support the Association's mission. Comprehensive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of each fund shall be diligently maintained by the Committee.

8. Current: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S

6. GREEN PROJECT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reen Project Committee to 1) communicate with the young members of alumni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all alumni activities; 2) communicate with the young members of alumni and assist them in research fellowship, resident matching, interview and examination, visa status, and alike; 3) assist the young graduates and senior students in medical school in Korea who wish to be trained in the U.S. It shall consist of 5 or more members.

Amendment: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S

6. GREEN PROJECT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reen Project Committee to 1) communicate with the young members of alumni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all **association** activities; 2) communicate with the young members of alumni and assist them in research fellowship, resident matching, interview and examination, visa status, and alike; 3) assist the young graduates and senior students in the **university** who wish to be trained **and/or establish their career in North America. Young members who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within 20 years are eligible for the benefits of the committee activities.**

9. Current: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S

13. CHARITY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harity Committee to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for the well-being and health of communities. The Committee will operat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any activities being subject to the approval of such Board. The Committee will determine which charitable activities to promote based on the need for such activities. The Charity Committee shall consist of four members who reside in different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have demonstrated prior commitment to charitable causes.

14. SILVER PROJECT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ilver Project Committee to 1) communicate with senior members of alumni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all alumni activities, 2) communicate and assist in organizing alumni events for senior members, 3) plan to accommodate and serve the increasing numbers within our organization.

Amendments: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S

13. CHARITY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harity Committee to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for the well-being and health of communitie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mmittee will operat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any activities being subject to the approval of such Board. The Committee will determine which charitable activities to promote based on the need for such activities. The Charity Committee shall consist of four members who reside in different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have demonstrated prior commitment to charitable causes.

14. SILVER PROJECT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ilver Project Committee to 1) communicate with senior members of alumni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all alumni activities, 2) communicate and assist in organizing alumni events for senior members, 3) plan to accommodate and serve the increasing numbers within our organization

10. Current: Article XII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Directors

A. HOUSE OF DELEGATES

3. The term of delegates shall be one year and shall commence on the first day of July each year. The Secretary of the Association shall publish the names of the delegates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erm.

Amendment: Article XII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Directors

A. HOUSE OF DELEGATES

3. The term of delegates shall be one **or more years** and shall commence on the first day of July each year. The Secretary of the Association shall publish the names of the delegates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erm.

11. Current: Article XII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DIRECTORS.

B. BOARD OF DIRECTORS

Ten directors shall be elected annually by the House of Delegate, each for a term of three years. In the event of a vacancy, a director shall be el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serve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at which time the House of Delegates shall elect a director to fill the remaining term. The directors shall hold office until their successors be elected and confirmed.

Amendment: Article XII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Directors.

B. BOARD OF DIRECTORS

Ten directors shall be elected annually by the House of Delegate, each for a term of three years. In the event of a vacancy, a director shall be el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serve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at which time the House of Delegates shall elect a director to fill the remaining term. **No person shall serve more than three consecutive terms as director.** The directors shall hold office until their successors be elected and confirmed.

2023-24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전경배 52대 회기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950	나수섭	1954	김갑균	1956	서상철
1958	김부근 김시한 박호현 송세엽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최창승				
1959	김용덕 나길진 오형원 이교락 정태진 최용천 한성업				
1960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오신중 이광준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최홍락 한성수				
1961	곽동린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안창현 이동해 이재승 이한수 이회백 장성환 정두현 조은순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1962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Mrs. 이영웅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현철 노인규 김태형 김택수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이병준 이수인 임춘수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승현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1964	권정덕 김용두 송원길 신두식 양운택 오유섭 윤희기 이정필 이주영 이종오 조성준 최준희 홍선경				
1965	김건언 김덕진 손광호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희 이한중 이화성 정길화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한원민 한재은 황규정				
1966	김용재 김은한 김의신 김충규 이명희 이영일 이인수 장한교 조관상 최순채 한동수 한일성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영철 김인귀 김태웅 노여수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육태식 이소희 이우용 이정화 이태안 최무웅 최승웅				
1968	김경인 김정웅 김재관 김희주 김 철 노영일 서윤석 안세현 유우영 이견일 이상훈 이한홍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Mrs. 황종숙(고 황훈규 부인)				
1969	김중권 김창남 도상철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육순재 이용환 이충호 임응규				
1970	오석일 박홍식 홍 건 조영갑 조남현				
1971	강유구 강창홍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효순 노재홍 박상효 서정자 서상헌 오동환 오상현 이남수 이종일 정인용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현배 석창호 이신재 이철재 정희현				
1973	김정웅 나두섭 노인규 민인기 박진섭 방병기 서인석 오인환 이계석 이인철				
1974	권철수 유영준	1975	박인영 전경배		
1976	김정아 한승신	1978	허경열	1980	박남훈
1984	서귀숙	2008	박종한		

GREEN PROJECT FUND

이종석(60)	200	차재철(68)	75	박진섭(73)	200	서인석(73)	100
박인영(75)	150	전경배(75)	10,000	김명호(75)	3,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박남훈(80)	300	서귀숙(84)	100		

CHARITY FUND

이종석(60)	175	박승균(61)	100	김성준(61)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100	강명식(67)	175	차재철(68)	100
강창홍(71)	75	문대옥(73)	375	민인기(73)	200	이인철(73)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8)	100				

SCHOLARSHIP FUND

임필순(60)	200	박명근(60)	250	김성준(61)	100	김태웅(63)	11,000
한기현(63)	375	장세곤(63)	350	차재철(68)	100	이건일(68)	125
오석일(70)	150	김효순(71)	125	이남수(71)	75	서정자(71)	350
문대옥(73)	200	박진섭(73)	2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Mrs. 김공자(고 김국민 '60 부인)	2,000						
Mrs. 황종숙(고 황훈규 '68 부인)	5,000						

GENERAL DONATION

서상철(56)	175	최창승(58)	1,000	정태진(59)	75	오형원(59)	50
한성업(59)	75	장성환(61)	100	김화섭(61)	100	한수웅(61)	225
한혜원(61)	225	김석식(62)	50	신경호(63)	50	장인호(63)	75
송용덕(63)	300	권영조(63)	500	김태웅(63)	1,000	김용두(64)	75
양운택(64)	200	최준희(64)	300	정길화(65)	100	채도경(65)	100
한재은(65)	225	조관상(66)	50	이인수(66)	100	이소희(67)	200
김성철(67)	75	이상훈(68)	175	홍광신(68)	100	차재철(68)	100
김희주(68)	100	김중권(69)	200	도상철(69)	125	이용환(69)	100
송유준(70)	100	홍 건(70)	100	김유식(71)	75	오동환(71)	100
나두섭(73)	200	김정웅(73)	75	문대옥(74)	300	방병기(73)	100
권철수(74)	100	유영준(74)	125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서귀숙(84)	100						

AASCDTF DONATION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	-----	---------	-----

2023 DIRECTORY DONATION

김갑균(54)	50	서상철(56)	100	송세엽(58)	75	김용덕(59)	25
임필순(60)	50	이종석(60)	200	한성수(60)	75	강창욱(61)	500
이재승(61)	150	정두현(61)	100	김화섭(61)	50	황현상(61)	75
김택수(63)	25	장세곤(63)	50	송용덕(63)	50	김용두(64)	100
신두식(64)	100	권정덕(64)	200	이한중(65)	50	채무원(65)	300
최순채(66)	100	장한교(66)	75	유진일(67)	25	김진홍(68)	75
서윤석(68)	1,000	이건일(68)	50	차재철(68)	100	방준재(70)	500
김성환(71)	1,000	오동환(71)	100	하준영(71)	75	서정자(71)	50
오용호(72)	250	나두섭(73)	200	노인규(73)	50	송정자(73)	50
권철수(74)	100	유영준(74)	5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Mrs. 허정숙(고 허선행 '64 부인)	200						

12. Current: Article XII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Directors

B. BOARD OF DIRECTORS

11. Any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who neglected to attend three consecutive regular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considered as a subject of removal by vote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unless such absence resulted from medical illness or resulted from other personal or official business engagements out of the city in which the meeting was held.

Amendment:

11.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expected to attend the Board's regular meetings, in-person or virtual, and be responsible for the Board's activities. If the members cannot participate, they should delegate their rights to another member.

13. Current: ARTICLE XIII OFFICERS

3.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for a term of one year and until their successors are chosen.

4.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r in his absence, the First or Second Vice-President shall preside at all meetings of members, the House of Delegat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perform the duties usually devolving upon a presiding officer.

5. The President-elect shall be nominal officer, and shall serve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until succeeding the presidency upon the conclusion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Amendment: ARTICLE XIII OFFICERS

3.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for a term of two years and until their successors are chosen.

4.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r in his/her absence, the First or Second Vice-President shall preside at all meetings of members, the House of Delegat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perform the duties usually devolving upon a presiding officer.

5. The President-elect shall be nominal officer and shall serve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until succeeding the presidency upon the conclusion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6. In the event when the election of officers from the regular members is deemed difficult, appointing a non-regular member can be done with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later approved by the House of Delegates.

7. The replacement of vacant officers (except for the president) can be done with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later approved by the House of Delegates.

14. Current: ARTICLE XIII OFFICERS

7. The secretary shall attend all meetings of the House of Delega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ll meetings of members and shall act as clerk of each meeting, recording all votes and the Minutes of all proceedings in a book to be kept for that purpose. He shall perform like duties for any Committee of Members, when

requested. He shall cause to be given notice of all meetings of members of the House of Delegates, or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n notice is required by these By-Laws. He shall have custody of the original copy of the By-laws and all amendments thereof and shall cause each new member to sign the By-Laws and shall cause a copy of the By-Laws to be posted in the conspicuous place in the House. He shall receive all applications for Associate and Honorary Membership and shall transmit the same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if approved to the House of Delegates for approval or rejection. He shall keep in safe custody the seal of the Association, and when authoriz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ffix it to any instrument requiring a seal. He shall conduct the correspondence of the Association and shall execute all instruments as may be officially authorized.

Amendment: ARTICLE XIII OFFICERS

7. The secretary serves as clerk of all essential functions of the Association. The roles and duties of the secretary are the following:

- 1) to attend all meetings of the House of Delegates, the Board of Directors, and all other meetings requir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2) to document all votes and minutes of proceedings in a designated book in the attended meetings.
- 3) to serve as a member of the Committees of the Association, when requested by chairs.
- 4) to inform upcoming meetings of the House of Delegates memb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when required by the By-Laws.
- 5) to keep the original copy of the By-Laws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safe.
- 6) to receive all applications for the Memberships and submit them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approval and, if approved, to the House of Delegates for final determination
- 7) to keep the seal of the Association in safe custody and affix it to relevant documents as dir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8) to manage the correspondence of the Association and execute official instruments as authorized.

15. Current: ARTICLE XVIII AMENDMENT

The By-laws may be amended at any 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by the affirmative vote of two-third of the Delegate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copies of the proposed amendments have been sent to all voting members in advance of the meeting, at which the final action shall be taken.

Edited for clarity and approved by By-Laws Committee (5/15/15)

Amendment: ARTICLE XVIII AMENDMENT

The By-laws may be amended at any 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by the affirmative vote of two-third of the Delegate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copies of the proposed amendments have been sent to all voting members in advance of the meeting, at which the final action shall be taken.

Edited for clarity and approved by By-Laws Committee (9/1/23)